

# Style **1** 조선일보

AUGUST 2016 vol.144



티파니™ 세팅  
130년을 이어 온 경이로운 전설

#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HERMÈS BY NATURE







46

48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1백30여간 이어온 경이로운 전설, '티파니' 세팅 링이다. 1백7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의 전설적인 웨딩 링으로, 다이아몬드를 정교한 6개의 프롱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세팅해 눈부신 광채를 선사한다. 문의 02-547-9488



39



- 12 **명 때려도 괜찮아, 내려놓기의 마학** 어쩌면 우리는 능률을 위해 무던히도 질주하는 일상에서 삼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스스로를 보듬을 여유, 그러나 '내려놓기'의 기술부터 습득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 14 **couture nature** 섬세하고 정교한 자연의 오브제와 하이 주얼리의 대범함이 만나 새로운 계절을 부르는 컬러의 향연을 펼친다.
- 16 **THE ONLY ONE** 의미심장한 인생의 첫 번째 보석을 원한다면 원 캐럿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라.
- 18 **DELICATE TOUCH** 새하얀 웨딩드레스 끝자락 사이로 살포시 보이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디테일의 웨딩 슈즈.
- 20 **WISH LIST** 세련된 예비부부의 새살림에 어울릴 컬러풀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웨딩 기프트.
- 22 **GLORIOUS WONDER** 축복과 살렘으로 가득한 웨딩. 여기에 아름다운 빛과 풍미를 더하는 주얼리 & 워치 컬렉션.
- 30 **LUXE & CLASSIC** 머느리와 시어머니의 취향을 모두 만족시키는, 품격과 실용성,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까지 겸비한 럭셔리 하우스 8곳에서 제안하는 2016년 예단 백 리스트.
- 32 **EDITOR'S PICK**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운 신부를 위해 (스타일 조선일보)가 기획한, 웨딩 디테일을 기념한 뷰티 케어 제품.
- 33 **SMART LIFTING** 가장 아름답게 빛나야 할 중요한 순간을 위해, 단 한번의 사용으로도 눈에 띄게 달라진 피부를 선사할 사일의 '르 리프트 V-플래쉬'로 스마트하고 집중적인 뷰티 케어를 시작해볼 것.
- 34 **JEWEL BOUQUETS** 최고만을 고집하는 타사카가 완성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위한 플래툰 컬렉션.
- 35 **THE MAKING LEGEND** 일상에 걸쳐 1백만 번 바라보게 된다는 웨딩 링. 웨딩 링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티파니 웨딩 컬렉션의 특별한 스토리.
- 36 **A MASTERLY CHOICE** 한국인이 가장 사랑해온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의 변신이 꽤나 흥미롭다. 브랜드의 5대 마스터 블렌더가 호기롭게 빛어낸 아삼작 발렌타인 마스터스(Ballantine's Master's) 뉴 패키지를 소개한다.
- 37 **THE TRUE VALUE** 교토의 감성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대표적인 주얼리 브랜드 니와카(Niwaka)에서 선보이는 브라이덜 컬렉션.
- 38 **PRIME BEAUTY**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기준과 가치, 품격을 담은 명불허전 클래식 뷰티 예단 TOP 11.
- 39 **PURE FANTASY** 화이트의 아름다움이 가장 돋보이는 클래식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2016 이탈리아 웨딩드레스 컬렉션. 은은히 드러나는 섬세한 디테일과 여성스러운 장식이 완성하는 한여름 밤의 꿈.
- 46 **UNCONVENTIONAL COMBINATION** 이 시대 가장 눈에 띄는 영화감독, 자신의 작품이 빈틈 많은 이상한 영화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최동훈 감독이 요즘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BMW 뉴 7 시리즈와 만났다.
- 48 **MOST INNOVATIVE WORLD** 몽블랑의 특별한 세상, 스위스의 빌레와 르 로를에 위치한 매뉴팩처에서 경이로운, 몽블랑의 존경할 수밖에 없는 장인 정신과 혁신적인 하이 캄플리케이션 워치의 탄생.



# Style 조선일보

Issue.144 August 2016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어시스턴트 | 김수민 권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NDI.COM

**FENDI**





포토그래피 박진주

**Jewel  
MORE  
BRILLIANT**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링을 더욱 빛나게 해줄, 우아한 가드 링 컬렉션.

(가운데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부드러운 라인을 표현한 이르수 링 1천2백만원대 **루시에**,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한 파피르헤르비트 이터너티 가드 링 2백만원대 **타사키**, 스물과 열다섯에서 영감을 받은 파우 링 50만원대 **루시에**, 안쪽에만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사투라 골드 밴드를 마치 파피르와 같은처럼 디자인한 컵 링 3백50만원대 **타사키**, 장미 꽃바구니를 모티브로 한 파피르에 링 2백만원대, 장미의 프랑에서 영감을 받은 코르셋 링 2백만원대 모두 **루시에**, 작은 파피르가 이어지는 포앙드 다이아몬드 플래그-링 1천만원대, 코트로 레전드 화이트 골드 스물 링 2백만원대 모두 **부세론**, 에디터 **베리진**

**Focus  
A LEGACY OF STYLE**

지난 7월 4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의 방돔 광장 26번지, 노스 호텔(Noce Hotel) 3층에서는 경이로울 만큼 아름다운 퍼포먼스가 펼쳐져 전 세계 명사들의 환호와 찬사가 가득 찼다. 안무가들과 함께 등장한 3명의 아름다운 프랜차 모델이 우아하고 섬세한 동작으로 행위 예술을 선보인 것인데,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모델들의 목선과 가려진 팔목, 손, 깃발을 타고 부드럽게 흐르는 부세론의 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이다. 매년 감탄을 자아내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이는 부세론이 쇼케이스 대신 영원히 기억에 남을 특별한 주얼리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 패션 큐라이터 올리비에 사이야르(Olivier Saillard)가 진두지휘한 이 퍼포먼스는 부세론의 예술적 감각을 재확인하고 실린자의 천재성에 대한 찬사를 주요 테마로 해, 부세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클레어 슈아스(Claire Choise)이 디자인한 부세론 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인 '방돔 26, 스타일의 유산 26 Vendôme, A Legacy of Style'을 예술적으로 소개했다. 크게 디자인, 건축의 영감, 포르테 쿠틀 등 3개의 컬렉션으로 구성된 이번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1893년 방돔 광장에 첫 부티크를 오픈한 부세론의 역사적인 장소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 대담한 자연, 시대를 초월한 쿠틀러 주얼리에 대한 비전을 이어나간다. 백합, 여름 밀을 매종 스타일로 재탄생시킨 '리스 라디안트(Lys Radian)' 컬렉션, 기하학적인 완벽함과 이터너티 라인의 순수함을 반영한 '호텔 파르티클리에(Hôtel Particulier)' 컬렉션, 오토 쿠틀러 케이프를 살포시 걸친 듯 유연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카프 드 루미에르(Cape de Lumiere)' 컬렉션이 대표적으로, 그 찬란한 아름다움은 이 페이지 속 사진을 통해 확인해보자. 문의 070-7500-7282 에디터 권유진



리뷰 박진주, 사진 박진주, 포토그래피 박진주

**INSIGHT**

편입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사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ashion  
단한 사람을 위한 맞춤 서비스**

당신을 위해 최적화된 맞춤 슈트는 일상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 날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여기, 입는 이의 체형과 취향,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예복을 만들어주는 MTM(Made to Measure) 서비스를 진행하는 남성 패션 브랜드들을 살펴보자. 먼저, **에르메네제쥬도 제노**의 수 미주라 서비스는 예비 신랑의 정확한 신체 치수의 측정에서 시작된다. 총 4백50여 가지 소재, 1백여 가지 모델과 디테일 중 원하는 모든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기간은 3~4주 소요되며, 옷 안쪽에는 고객의 이름까지 새겨 소장 가치를 더욱 높였다. 문의 02-2240-6524, **브리오니**는 단 한 사람의 고객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형에 따른 사이즈 수정은 물론 개인의 취향에 맞춰 라펠과 안감, 버튼홀, 포켓 위치 등 무려 1천 가지가 넘는 세세한 디자인을 고객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진행한다. 이탈리아 장공들의 손을 거치기에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문의 02-516-9686. 마지막으로 **조르지오 아르마니**에서는 일반적인 슈트 무게의 2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 놀랍도록 가벼운 착용감으로 차별화했다. 비접착 심지심자나 패드 등 부자재와 걸감을 손으로 하나하나 연결하는 것을 사용해 보드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실루엣이 특징. 고객들은 원하는 소재와 안감, 버튼 스타일, 실루엣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라펠 유행과 포켓, 심골 또는 더블브레스트 디테일과 바지의 주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제작 기간은 주문 시점부터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된다고. 문의 02-549-3355 에디터 이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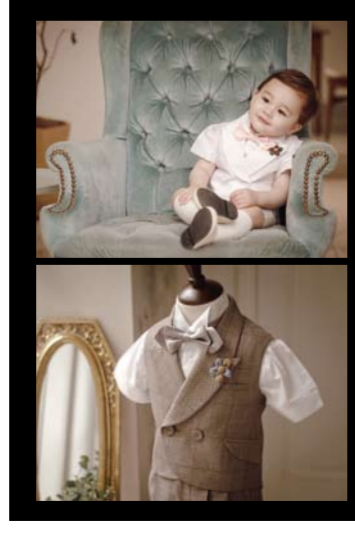


에르메네제쥬도 제노

조르지오 아르마니

조르지오 아르마니

\*822.3443.2323 prada.com



**Living  
내 아이의 첫 번째 슈트**

이 아이가 태어난 후 처음 맞는 생일을 뜻하는 '뽕은 어려모로' 의미가 깊다. 예로부터 아이가 한 살이 되는 날에는 이에게 가장 화려하고 예쁜 돌복을 입히고, 삼구들이 모여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왔던 만큼 돌복의 선택은 중요하다. 아직도 여전히 색동 한복을 입히기도 하지만, 트렌드에 민감한 세련된 부모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돌복 슈트를 직접 맞춤. 내 아이에게 항상 최고의 것만 주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 '리틀 핑킨'에서는 최고 품질의 돌복 슈트를 선보인다. 리틀 핑킨의 모든 옷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이탈리아 최고라 할 수 있는 에르메네제쥬도 제노의 원단으로 제작한다. 뛰어난 품질과 착용감을 경험 철학으로 내세운 브랜드이니만큼, 최고의 품질을 위해 까다롭게 선택한 천연 원료로 실을 자체적으로 생산, 원단을 제작한다. 리틀 핑킨이 이 원단만 고집하는 이유는 아이가 입고 움직였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까다로운 디자인, 그리고 대량생산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핸드메이드만의 정교한 테일러링을 갖추었기 때문. 이러한 작은 디테일과 에르메네제쥬도 스타일 요소는 옷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다. 리틀 핑킨의 슈트는 클래식한 동시에 리키하며 차별화된 톤으로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특별한 자리에서 아이가 더욱 돋보이게 해줄 것이다. www.littlepenguin.co.kr 문의 070-7628-0505 에디터 이지현





1 자주 아름답게 장식을 가미해 고혹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벨 라반의 웨딩드레스 2천원대인 **빌드러 by 아틀리에 쿠**, 2 크리스탈 장식이 돋보이는 버터플라이 프레이밍 안경 40만원대 **미우미우 by 루스타카 코리아**, 3 반지를 연상시키는 백 컬러자가 인상적인 클러치 클러치, 16X10.5cm, 4백90만원 **톨 프드**, 4 사각 프레이밍으로 포인트를 준 구조적인 디자인의 메탈 브레이슬릿 77만원 **살빈 by 본디샵**, 5 시선을 사로잡는 다이얼과 줄무늬 있는 새틴 브러시 래더 스트랩 워치 2천9백만원대 **오메가**, 6 화려한 연상시키는 골드 컬러 페이스 1백만원대 **아틀리에 쿠**, 7 특별한 날을 기념할 아이템으로 다할 나위 없이 완벽한 골든 매그널 샵에인 192만원대 **모엣 & 상동**, 8 스테레오의 유리 구두와 같은 투명함과 반짝임을 지니는 웨딩 슈즈 1백89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9 예쁜 주얼리를 보편하기 좋은 고급스러운 크로커다일 가죽의 주얼리 박스 가격 미정 **플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10 깔끔하면서 우아하게 떨어지는 라인과 로고 메탈 장식이 특징인 카워 신 BB 백, 28X28cm, 5백만원대 **루이 비통**, 11 보물을 꾸민 꽃 장사처럼 관능적인 플로럴 오라엔탈 향을 풍기는 발렌티나 오데파퐁, 30ml, 9만8천원 **발렌티노 파퐁**, 12 브랜드 이니셜의 V자 로고와 모노그램 패턴을 인그레이빙한 원형 모티브가 어우러진 싱글 아이원 1백만원대 **루이 비통**, 13 플라워 모티브로 이루어진 드림 아이원 5천원대 **티파니**.

아틀리에 쿠 02-517-3889 루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톨 프드 02-6905-3640 본디샵 02-2066-1234 오메가 02-511-5797 모엣 & 상동 02-2188-5100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플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070-7130-9206 루이 비통 02-3432-1854 발렌티노 파퐁 02-3443-1805 티파니 02-547-9488

# for her Selection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될 웨딩. 누구나 꿈꾸는 그 소중한 행복의 순간을 위해 고심해서 고른, 신부를 위한 웨딩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 TASAKI





1 세이빙 브러시와 면도기로 구성된 세  
0템 세트 33만원 **더 센타드**, 2 고급스러운 다크 블루  
색상의 약자가 주 벨트 98만원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3 독특  
한 우드 소재 프레임과 착용한 반발에 인경 30만원대 **레이온 by 록스  
타카 코리아**, 4 울 소재의 블랙 슈트 3987만원대, 화이트 셔츠 73  
만원, 실크 보타이와 카라컨트는 세트로 42만원대, 포켓 스카어 18만원 모두  
**에르메네제갈도 제나**, 5 자동차 키 링뿐 아니라 가방에 다할 참 장식으로도 활  
용 가능한 키 홀더 70만원대 **루이 비통**, 6 플라워 모티브 부츠에 25만원 **랑  
방 울트**, 7 견고한 소재를 사용해 스크래치에 강한 미니 클립 58만원 **발렌  
스트라**, 8 수조 밀착에 스타드 장식을 더해 클래식한 이미지에 반전율을 준 레  
이스업 슈츠 11833만원 **자형시 by 분다삼**, 9 새벽 무렵의 푸른빛에서 영감  
을 받아 육각형 패턴에 질투를 띠고 생명을 입혀 반짝임을 표현한 미아스터스릭  
슬라타이 블루이워 인라인 118800만원 **몽블랑**, 10 클래식한 숫자 인덱스  
와 심플한 크로노그래프 카운터가 돋보이는 까만라 칼라버 1887 크로노  
그래프 43mm 99665만원 **태그호이어**, 11 화이트 컬러 블랙으로 포인트  
를 준 남성용 브리프케이스, 34.5x26cm, 29660만원대 **엘비**, 12 사진  
뿐 아니라 향상된 영상 촬영 기능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DSLR 카  
메라 EOS 80D 1백42만원대 **캐논**, 13 스마일 모티브를 픽셀 모양으로  
표현한 키 홀더 34만원대 **안아 힌데미치 by 분다삼**, 14 우주를 품은  
듯 영롱한 블루 칼라가 돋보이는 카프스 링크 9925천원 **까르띠에**.

더 센타드 02-3479-1962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070-7130-  
9206 록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에르메네제갈도 제나 02-  
2240-6524 루이 비통 02-3432-1854 랑방 울트 02-6905-  
3496 발렌스트라 02-6905-3362 분다삼 02-3444-3300  
몽블랑 02-1670-4810 태그호이어 02-548-6020 델  
보 02-3449-5916 캐논 1588-8133 까르띠에  
1566-7277

# for him Selection

지나치게 튀지 않으면서도 블랙을 더욱 멋스럽게 돋보이게 할 컬러는 바로 블루다.  
이 두 컬러가 어우러져 고루하지 않으면서 세련된 인상을 심어줄, 예비 신랑을  
위한 웨딩 셀렉션, *photographed by kim do hyun*

스타일링: 김도현, 사진: 김도현, 헤어: 김도현, 메이크업: 김도현



# RADO

SWITZERLAND

RADO CENTRIX AUTOMATIC  
OPEN HEART  
HIGH-TECH CERAMIC ELEMENTS  
TANG WEI

THE SWATCHGROUP KOREA

HR PASSION 롯데월드몰 코엑스몰 AK PLAZA 수원부티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센텀시티점 경기점 의정부점 충청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킨텍스점 울산점 부산점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스와치그룹CS센터 02 3149 9555





# 멍 때려도 괜찮아, 내려놓기의 미학

많은 이들이 여가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휴식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정작 휴가를 맞이해도 그걸 온전히 즐길 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다. 기진맥진해서일까? 잘 놀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일까? 노는 것도 잘해내기 힘들다. 어쩌면 우리는 능률을 위해 무던히도 '질주하는 일상에서 심적으론, 육체적으론나 스스로를 보듬을 여유, 그러니까 '내려놓기'의 기술부터 습득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멍 때리거나 딴생각 같은 '정신의 방랑'을 제대로 허용해야만 오히려 이 사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창의성도 솟아난다는 조언에 귀 기울여볼 시점이 아닐까 싶다.

*"과거에는 속 편하게 노는 것에 대한 수용력이 있었다. 그러나 능률을 숭배하면서 그러한 부분은 사라져버렸다."* \_버트런드 러셀

하룻동안 평균 3천 단어의 글을 써 내려갔다는 정열적인 문필가이자 사상가, 철학, 수학, 과학, 사회학, 예술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던 세기의 지성. 거의 1백 세를 채울 정도로 장수한 버트런드 러셀(1872~1970)은 꽤나 부지런하게 일했을법한 인물이지만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란 자신의 저서에서 '여가의 미학'을 누누이 강조하는 의외의(?) 면모를 보였다. 그는 '근로'가 미학이라는 믿음이 현대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언뜻 듣기만 해도 '꿈 같은' 사회상을 제안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말이다. 그는 눈부시게 발달한 현대 기술이 만인을 위한 생활 필수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노동의 양을 엄청나게 줄였으며, 이제 문명에 피해를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긍정하게 여가를 분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인구의 과로는 과잉 공급을 낳고 생산품의 가치를 떨어뜨려 소수의 배만 불릴 뿐 결국에는 온 사방에 고통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짧은 노동시간이 전체적으로 볼 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 현대인들은 왜 늘 바쁘다고 느낄까?

러셀이 주장한 4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은 당시에는 그야말로 이상문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발달한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이미 엄청난 노동 강도(적어도 물리적으로는)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술의 발전 덕분에 사람들의 생활과 업무는 날로 편리해지고, 같은 일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보라(19세기 초반 해도 영국에서는 남성의 평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었고, 아이들도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게 보통이었다고 한다). 야근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지만 오늘날 상당수 국가에서는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었으며 각종 휴가를 누릴 수 있는 근무 환경이 구축돼 있다. 그러나 '시간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 그럴까?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시간의 가치가 상승해서, 즉 '시간=돈'으로 여겨지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 '비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렸다는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급, 계층일수록 시간 부족을 호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돈벌이

때문에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거나, 여유가 생기더라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아깝다고 느낀다는 설명이다. 또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기를 일상적으로 끼고 사는 현대인의 디지털 환경도 여유를 빼앗는 원인이 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메일을 주고받고 연락을 취할 수 있기에 근무 시간 외에도 업무가 가능해진 터라 '쫓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일을 하고 있어도, 쉬고 있어도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기 심상이고 말이다. 물론 시간은 소중하다. 하지만 이처럼 '시간' 예측형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조금 덜 일하고 더 많이 놀자는 '레저 경제'로 전환되고 있지만, 우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면 노라면 여가를 누릴 때조차도 '효율'을 따지고, 그래서 '금쪽같은' 시간에는 정작 더 지쳐버리는 경우도 많다.

## '비움의 시간'이 차이를 만든다

'속 편히 놀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상 과제로 여겨지는 창의성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러셀을 비롯해 내로라하는 석학들이 여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창의성이라는 덕목 때문이다. 꼭 필요한 일만 해야 기력을 소모하지 않고 여가를 제대로 즐길 수 있고, 그에 따라 생긴 여유가 자연스럽게 다른 세계와의 소통을 부르고 창의성을 샘솟게 하는 지양분이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창의성은 어쩌면 '시간의 효율'처럼 많은 이들의 심신을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단이다. '창의적 발상'을 논할 때 자주 애용되는 표현이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최상의 방법은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다." 평생에 한 번 번기듯 어려운 노벨상을 두 차례나, 그것도 서로 다른 분야(화학상, 평화상)에서 받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명언이다. 여기서 아이디어의 원천은 자신의 머릿속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흡수할 수 있는 협업의 힘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기본적으로 노력의 양이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설명한다. 물론 폴링 박사는 열심히 생각하고, 많은 이들과 어울리면서 영감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아이디어 중 '진짜'는 쪽정리를 과감히 솥아내는 '버림'의 과정에서 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폴링 역시 아이디어를 많이 흡수하되 나쁜 아이디어는 버리는 일의 중요성을 부연하는 걸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려놓기'를 조언했다. 어떤 분야에서든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매달려서는 오히려 참신한 아이디어가 솟아날 가능성을 차단해 빼어난 통찰력을 얻을 수 없으므로 정신을 자유롭게 풀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니븐의 저서 <나는 왜 똑같은 생각만 할까>에 따르면 폴링 박사에게 위대한 아이디어를 안겨준 곳은 그의 침대였다고. 또 인공지능은 수학 공식이 풀리지 않을 때면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이 시간이 해당 풀이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한다. 문젯거리와 거리를 둔 상태에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유레카'로 이끄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정신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맡겨두는 자유의 시간 덕분에 답을 찾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 멍 때리거나 딴생각하기는 가장 창의적인 방탕일 수 있다

<딴생각의 힘>이라는 책을 쓴 캐나다 출신의 심리학자 마이클 코벌리스는 이런 유의 자유를 '정신의 방랑'이라고 부른다. 그는 소위 '멍 때리거나 이리저리 '딴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인간 의 본성이며 집중 압박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집중, 특히 무이지경에 비할 만한 '몰입'의 가치는 많은 이들이 칭송하듯이 엄청나게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뇌 속에서는 딴생각과 집중 상태가 끊임없이 실랑이를 벌이기 마련이고, 몰입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란 힘들다. 집중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뇌에 휴식이 꼭 필요하다. 인간의 집중력은 '정신의 메모지'에 해당하는 작업 기억에 달려 있는데, 이 작업 기억이 혹사당하지 않아야 사색이 이뤄지고 사고를 통제하는 능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딴생각도 나름 위력을 지닌다는 게 코벌리스 교수의 주장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는 멍하니 있거나 딴생각을 할 때 특히 활성화되는 부위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MN)'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지아 성찰, 사회성, 창의성 등에 영향을 미쳐 더 창의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우리가 딴생각을 하더라도 뇌는 나름 '열일' 상태인 테다 때때로 창의적인 발상까지 '부하'시킬 수 있으므로 좌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정말로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면, 조직 차원에서 그거 기계처럼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딴생각에 빠질 시간을 제공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코벌리스 교수는 주장한다. 실제로 딴생각의 역학에 동의하는 기업 사례가 점점 더 눈에 띈다. 디지털 세상의 선두 기업 구글은 사무실 각 층에 계단 대신 달팽이 모양의 미끄럼틀을 들여놓았고, 공유 경제의 대표 주자 에어비앤비는 파워더 룸을 상상력을 북돋울 수 있도록 동화 속 공간처럼 만들었다고 한다. 이동하거나 화장실에 가는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업무에서 벗어나 딴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소개된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인사속 디지털 계획 사례를 보면 층과 층 사이에 널찍한 실외 공간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는 직원을 공유 공간으로 유도해 서로 부딪히고 담소를 나누는 중에 우연히 썩트는 창의적 발상에 대한 은근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석된다. 기업들의 이러한 행보에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면서 집중한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지는 않는다는 시각이 깔려 있는 셈이다.

## 일상에서 '내려놓기' 연습하기

최근 서점가에서는 '열심히 하지 마라', '너무 노력하지 마라'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책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유의 자기 계발서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초대형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의 변종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지나친 '달관론'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심리학적, 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집단 차원의 목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때때로 '내려놓기'를 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주장만큼은 되새길 필요가 있을 듯하다. 잘 풀리지 않는데도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빨리 해결하려고 전전공공하는 것이야말로 시간 낭비가 아닐까.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운동이든 산책이든 뜨개질이든 자신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일의 속도를 다소 늦춰 다른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실제로 창의성을 측정할 한 실험에서 세 그룹의 피험자가 휴식 시간을 제공받으면서 기억력을 요하는 과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과제, 별로 힘들지 않은 과제를 각각 수행했는데, 그중 손쉬운 과제를 수행한 그룹이 결과적으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고 한다. 코벌리스 교수는 아마도 딴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했다(흥미롭게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쉬운 과제를 수행할 때 딴생각이나 멍 때리기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어느 물리학자는 내려놓기의 미학이 빛을 발하는 장소로 '3B', 즉 버스(bus), 욕조(bath), 침대.bed)를 꼽았다. 휴가철을 맞이해 오랫동안 어디론가 떠날 수 있다면, 그래서 3B를 마음껏 섭렵하면서 주야장천 딴생각과 멍 때리기의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도 스스로 딴생각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내려놓기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할 듯하다. 그 과정에서 생각의 널뛰기가 가능한 자신만의 내려놓기 도구와 장소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일상에서 창의적인 해답 찾기에 점차 익숙해지면 휴가 때도 '방콕'을 택하면서 뭔가 일을 해결해보려고 버둥거리거나, 아니면 멀리 떠나더라도 짜뻬드한 심신을 달래느라 외려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불행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SI** 에디터 고영선



(왼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이 주얼리의 정석인 카보숑 컷에 빛이 아름다운 울을 담은 빵 드 슈크르(Pain de Sucre) 네크리스, 이터미널과 탄자이트 같은 유색석을 볼륨감 있게 세팅했다. 정교한 카보숑 컷 채진 세팅도 프레드만의 독보적인 노하우다. 모두 프레드, 문의 02-514-3721

핑크 골드와 레드 컬러 카라퀴, 초이트 마더오브밀, 라운드 다이아몬드까지, 하드 타인의 다양한 소재를 개성적으로 매치해 독특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세로 운항이 주얼리 부동 도르(Bouton Dor) 컬렉션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 모두 반 클리프 아메, 문의 00798-852-16123

영원한 사랑의 약속과 희망을 의미하는 티파니 키 컬렉션. 다양한 형태의 열석 모티브와 유색석을 매치해 섹시의 톱이 넓고, 자신의 탄생지나 기념일에 맞는 스톤을 선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오직 한국인을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키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모두 티파니, 문의 02-547-9488

이슬과 노래만 먹고 산다는 전설을 간직한 메미에게서 영감을 받은 시아다(Cicada) 링. 해도에 0.72캐럿 카보숑 컷 사파이어를 세팅해 브랜드 고유 컬러인 이터미널을 잘 표현했다. 다이아몬드와 록 크리스탈의 조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부세몬, 문의 070-7500-7282

11mm에 달하는 최상급 남양 흑집 진주와 백집 진주를 반씩 넣어 음양의 조화를 표현한 독특한 '탈리스 유.10트 링. 진주 소재의 혁신을 증명하는 타사키의 독보적인 진주 세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진주의 연결 부위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더 정교하다. 타사키, 문의 02-3461-5558

탈리스만(Talisman) 컬렉션 중 피티클라미르 이터미널 링. 희귀한 핑시 다크 오렌지 브라운 다이아몬드를 포인트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브라운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컬러 다이아몬드 세팅이 포인트는 컬렉션이다. 모두 사베 하이 주얼리, 문의 02-3442-0362 에디터 배미진



*couture*  
**Nature**

섬세하고 정교한 자연의 오브제와 하이 주얼리의 대범함이 만나 새로운 계절을 부르는 컬러의 향연을 펼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The all-new  
BMW 7 Series  
[bmw7series.co.kr](http://bmw7series.co.kr)



“작품을 만날 때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매 순간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중에게 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싶은 것이지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더 나아지려 할 때  
혁신은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BMW 뉴 7시리즈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랜 전통과 명성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기술력으로 다음 시대를 이끄는  
BMW 뉴 7시리즈는  
언제나 제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이것이 제가 BMW 7 SERIES를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 the only One

의미심장한 인생의 첫 번째 보석을 원한다면  
원 캐럿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라.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작은 라운드 다이아몬드 중앙에 솔리테어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풍성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아이론 링 1캐럿 기준 4천원대인 **반클리프 아펠, 칼리타가 푸아닌** 다이아몬드와 정교한 세팅으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한 SDR 펜던트 1.39캐럿 7천원대 **타파니**. 봉긋하게 솟아 오른 화이트 골드 베이스에 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로나 네크리스 3천원대 **불가리아**. 옐로 골드 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단아한 디자인의 네크리스 브랜드의 시크너리 컬렉션이다. 1캐럿 기준 5천원대인 **카르띠에, 부갈라** 칼리타가 화려한 유서한 2개의 다이아몬드가 필요하게 더욱 가치가 높은 SDR 이어링, 총 2.18캐럿 4천원대 **타파니**. 왕관 모티브에 아름답고 정교하게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완성한 코로나 솔리테어 링 1캐럿 기준 4천원대 **불가리아**. 대안을 그래픽적으로 표현한 볼륨감 넘치는 1932 링, 중앙의 코린세스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매력적이다. 4천원대인 **타파니** **사벨 화인 주얼리**. 기하학적으로 꼬여 있는 밴드로 화려한 볼륨감을 표현한 아이리시타블 링, 화이트 골드에 44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1.1 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부세온**. 작은 원형이 이어지는 독창적인 밴드 디자인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를리 솔리테어** 링 1캐럿 기준 4천원대 **반클리프 아펠**. 타사키 고유의 사쿠라 골드 부드러운 곡선형 밴드를 완성하고, 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라벨로** 링 2천원대 **타사키**. 결혼반지의 상징이자 다이아몬드를 높이 들어 올려 보석의 광채를 극대화한 솔리테어 링 형태의 **타파니** 세팅 링 1.07캐럿 2천원대 **타파니**. 사랑하는 연인이 포옹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쿠무로** 링 1캐럿 기준 5천원대 **반클리프 아펠, 에디터 베이진**

타사키 02-3461-5558 반클리프 아펠 00798-852-16123 타파니 02-547-9488 부세온 070-7500-7282 사벨 화인 주얼리 02-3442-0962 카르띠에 1566-7277 불가리아 02-2056-0171

\*다이아몬드는 등급과 색상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THE ALL-NEW BMW 7 SERIES. DRIVING LUXURY.

The all-new  
BMW 7 Series



Sheer  
Driving Pleasure

[bmw7series.co.kr](http://bmw7series.co.kr)



## BMW EFFICIENT DYNAMICS.

750Li xDrive 8.4km/l 450hp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 080-269-2200 BMW 공식 홈페이지 [www.bmw.co.kr](http://www.bmw.co.kr) BMW 페이스북 [www.facebook.com/BMWKorea](http://www.facebook.com/BMWKorea)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BMW 730Li xDrive 배기량 2,993cc, 공차중량 2,050kg, 차중 8톤, 복합연비 12.2km/l (도시연비 10.7km/l, 고속도로연비 14.8km/l) 복합CO<sub>2</sub>배출량 157g/km, 3등급, 750Li xDrive 배기량 4,395cc, 공차중량 2,155kg (4인승/2,145kg/5인승), 차중 8톤, 복합연비 8.4km/l (도시연비 7.1km/l, 고속도로연비 10.6km/l) 복합CO<sub>2</sub>배출량 209g/km, 5등급 \*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은 해당 시민주요의 예시이며, 모델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에너지소비효율은 가까운 딜러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적용 사항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INNER

2016 WORLD CAR AWARDS  
WORLD LUXURY CAR

자세한 정보는 BMW 7 Series 마이크로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www.bmw7series.co.kr](http://www.bmw7series.co.kr)

나눔, 더 나은 미래의 시작입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드레이핑된 프릴 장식과 힐에 대한 크리스탈 장식이 포인트인 메탈릭한 딥 퍼플 컬러의 스틸레토 힐 가격 미정 **로저 비비에**, 기하학적 형태의 굽과 화려하게 세팅한 크리스탈 장식이 하나의 아티스틱한 작품을 연상케 하는 오픈 토 힐 2백48만원 **주세페 자노티**, 알코에 아름다운 나비 모티브의 주얼 장식을 매치한 오픈 토 힐 1백68만원 **세르지오 로시**, 라운드 크리스탈을 마치 홀루리웃 세팅해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는 화이트 스틸레토 힐 1백89만원 **크리스찬 루브탱**, 화려한 주얼 장식과 매력적인 블루 컬러의 새틴 소재가 돋보이는 스틸레토 힐 1백73만원 **마블로 블라너**, 장미꽃 디테일을 더한 드레시한 디자인의 블랙 스트랩 샌들 1백59만원 **로저 비비에**, 화이트와 골드 컬러의 반짝이는 펄 피그먼트를 그래픽(선화)듯 연출한 스틸레토 힐 94만원 **지미추**, 여성스러운 새틴 리본 장식과 뒷굽에 화려하게 수놓은 크리스탈이 아름다운 화이트 스틸레토 힐 1백60만원 **디올**, 에디터 권유진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주세페 자노티** 02-543-1937 **세르지오 로시** 02-6905-3740 **크리스찬 루브탱** 02-6905-3795 **마블로 블라너** 02-3443-2113 **지미추** 02-3443-9469 **디올** 02-513-0300



# delicate Touch

제2의 인생을 향해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은 아름답고 특별해야 한다. 새하얀 웨딩드레스 끝자락 사이로 살포시 보이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디테일의 웨딩 슈즈.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ALL SEASONS RESORT  
용평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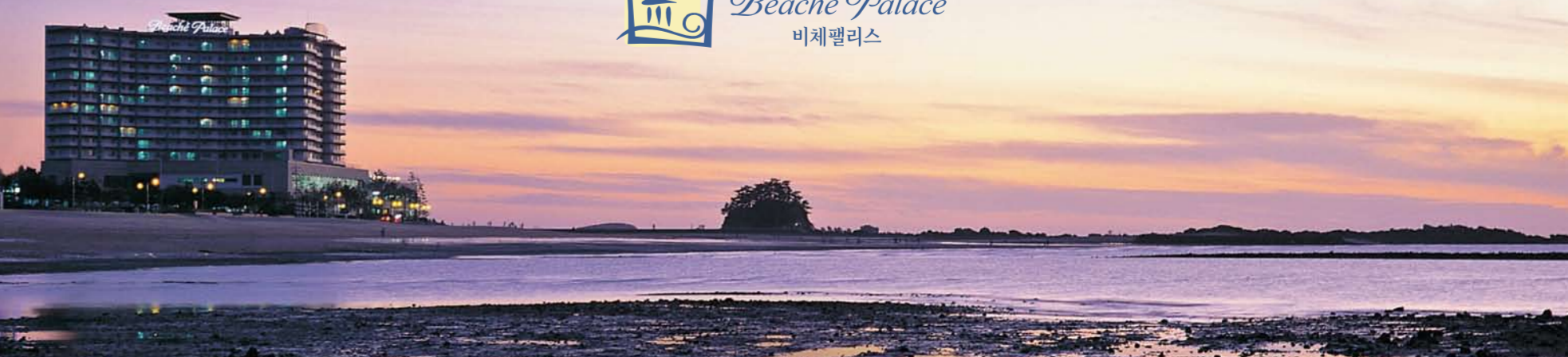
# 同·床·異·夢

그대가 바다를 꿈꾸는 동안...  
난, 은빛 설원을 꿈꾼다

## 무창포 비체팰리스 콘도분양 회원모집

서해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용평리조트, 무창포 비체팰리스- 힐링을 위한 스파&테라피, 테마풀, 워터파크는 물론 용평리조트의 스키, 콘도, 골프, 워터파크 회원혜택까지! 하나의 회원권으로 바다의 즐거움과 설원의 낭만을 동시에 즐기십시오.

비체팰리스 분양문의 02.3270.1137





**wish List**

세련된 예비부부의 새살림에 어울릴 컬러풀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웨딩 기프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높이가 낮아 테이블에 바로 놓을 수 있는 제품으로 잔포 요리, 조림에 적합한 더크레스트 컬렉션 프로노보 캐서롤. 2.6L, 50만원대 휘슬러.

가구 디자이너 조지 발슨이 디자인한 별강이형 현대 클래식 오브제인대 비틀라 by 에이후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적용해 음향감이나 디자인이 뛰어난 인테리어 오브제라도 손색없는 모조 스피커 2백60만원대 데이브 by 오디오갤러리.

무늬목으로 만든 바이올린 형태의 뮤직박스 오르골 2백만원대. 루즈

살내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공기 청정 기능을 겸비한 퓨어 플™ 링크 공기 청정 선풍기 99만원대 다이슨.

집안 어디에 두어도 멋진 포인트가 되어줄 코이노 살림시도 사파라 1인 스피커 3백만원대 도무스 디자인.

아세이미디어의 주유기인 플라츠 다터일이 본본은 페브릭 클로즈를 입힌 쿠션. 50cm, 28만원대 도무스 디자인. 모든 아세이미디어 제품을 즐겨보세요.

현관이나 화장대 위에 걸어둘 수 있는 심플하고 세련된 스트랩 미러. 50cm, 27만원대 헤이 by 에이치픽스.

에텐 동산을 모티브로 한 정교한 패턴이 눈에 띄는 온도급 케이스와 울나무로 제작한 라운드 박스. 13X18cm, 45만원대 크리스토폴.

4개의 원터치 전용 버튼을 이용해 카푸치노와 카페라테 등 다양한 커피 메뉴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ECAM45.760.W 커피 머신 2백50만원대 드롭키.

이러비안(나이트)에서 영감을 얻은 화려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다이아몬드 카팅 기법을 적용, 어떤 각도에서 봐도 아름답게 반짝이는 일루이 프릴티모 크리스탈 샹페인 잔 1백75만원대 (4개 세트) 바카라.

에이후스 02-3785-0860 도무스 디자인 02-514-9006  
에이치픽스 070-4656-0175 다이슨 02-3479-1490  
휘슬러 02-3448-0266 이델라 02-749-2002  
바카라 02-3448-3778 드롭키 080-488-7711 오디오갤러리 02-926-9084 크리스토폴 02-3479-1828 루즈 02-516-0016

www.canon-ci.co.kr

Canon  
Delighting You Always

캐논 카메라 선물 하나 더! 페스티벌

캐논 1대를 정품 등록하면 2가지 선물이 따라온다!  
2016.7.1 ~ 8.31

올 여름, 캐논 카메라 Pick 하고! 갖고 싶은 사은품 Pick 하고!  
캐논 행사제품 구매 후 정품 등록하시고 100% 지급되는 푸짐한 사은품까지 직접 고르세요!

EOS 750D / 700D / 100D / M3		EOS M10	
64G 메모리카드 + 정품배터리	OR	사모이 체중계 + 미밴드 1S	OR
페이스커버 + 렌즈 캡 홀더	OR	사모이 체중계 + 미밴드 1S	



*Romantic wedding jewelry*

(네크리스 위어(사부터) 부드럽게 묶은 리본 모티브의 곡선을 따라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상하행에 세팅한 **티파니** 다이아몬드 보우 네크리스 1천4백만 원대, 꽃잎을 이룬 마카즈 컷 다이아몬드와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믹스해 화려함을 극대화한 빅토리아 믹스드 클러스터 네크리스 가격 미정 모두 **티파니**, (네크리스 안,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행운의 상징과도 같은 유상에서 영감을 받은 꼬메트 링 0.37캐럿 기준 1천8백만 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티파니의 전설적인 디자인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시그니처인 옐로 골드 X 라인 시어스미에 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볼드한 디자인의 삭스틴 스톤 링 1천만 원대, 4캐럿의 마카즈 컷 다이아몬드로 꽃을 형상화한 빅토리아 링 8백만 원대 모두 **티파니**, 틸스럽게 피어난 동백꽃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까멜리아 아주르 링 6백만 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크고 화려하게 피어난 아름다운 팬지를 표현한 핑세 드 다이아몬드 라지 링 2천만 원대 **부세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동백꽃 모티브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뉴 까멜리아 인게이지먼트 링 1캐럿 기준 3천4백만 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4.47캐럿 라운드 다이아몬드의 양옆에 세브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메인 스톤의 화려함을 극대화한 프르미스 링 47캐럿 기준 가격 미정 **그르브**.

*glorious*  
**Wonder**

축복과 설렘으로 가득한 웨딩, 여기에 아름다운 빛과 품위를 더하는 주얼리 &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본 화보에 등장한 모든 다이아몬드 제품은 등급과 컬러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Sensible watches for couples*

(주얼리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별을 모티브로 한 에푸워 필만데 네크리스 1천1백만 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에센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그르브**, (시계 반지 위부터) 괴트르 그로그렘 화이트 골드 워치 밴드 각 1백만 원대 **부세몬**, 플라티넘과 옐로 골드가 어우러진 말그레인 컬렉션 각 2백만 원대 **티파니**, 가운데 선이 들어간 독특한 디자인의 카이로 컬렉션, 피에 여성 링 2백70만 원대, 남성 링 1백80만 원대 모두 **타사키**, 중앙에 0.04캐럿의 솔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커플 밴드 링 각 4백만 원대 **반들리프 이젤**, 브랜드 이니셜 T를 모티브로 한 T 컬렉션, 다이아몬드 와이어 링 2백만 원대, 화이트 골드 스퀘어 링 1백만 원대 **티파니**, (오른쪽 아래) 총 7.41캐럿에 달하는 1백35캐럿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에센셜 네크리스 가격 미정 **카르띠에**, (왼쪽 위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티쏘 로로콜 오트메리 켄트** 로이슈지 인덱스와 함께 자원을 0.1캐럿에 세팅한 여성 워치 65만 원대, **리도 트루 남성 컬렉션** 스크래치에 강한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로 만들어 특유의 매끈하고 유연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남성 워치 2백25만 원, **루빈 심포네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타원형 케이스에 은은한 자개 다이얼을 매치한 여성 워치 5백만 원대, **미도 비론블리 헤리티지** 시계 브랜드 중 가장 얇은 6mm 두께의 여성 워치 1백34만 원, **해밀턴 재즈마스터 레이디 오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타이 드롭형 인덱스가 인상적인 여성 워치 1백30만 원대, **리도 트루 여성 컬렉션** 순백의 모던함이 돋보이는 화이트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제작한 여성 워치 1백68만 원.





**Man's classic watch**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 **카르띠에 발롱 볼루 드 카르띠에** **엑스트라 플랫 워치** 발롱 볼루의 시그처 디자인 그대로 유지하면서, 6.9mm의 슬림한 케이스와 오묘하고 고급스러운 그레이 컬러의 다이얼, 딥 그레이의 약아주 스트랩을 더해 스타일리시한 면모를 지니는 남성 워치. 40mm 사이즈로 오직 남성 고관만을 위해 제작했다. 2천5백만원대. **오메가 드빌 아워비전**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예쁜 워치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드빌 컬렉션의 남성 워치로, 2층 구조의 블루 다이얼과 9열의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 로마숫자 인덱스에서 상세하고 세련된 풍격을 느낄 수 있다.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8000을 탑재했다. 8백만원대. **블가리 옥토 패시모 워치** 팔각 형태의 베젤이 특징인 옥토 컬렉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40mm 사이즈의 패시모 워치. 두께가 2.23mm에 불과한 울트라 실크 패시모 칼라를 탑재한 아주 얇은 케이스가 돋보인다. 3천1백만원대. **블랑팡 빌라레 컴플리트 칼린더** 기존 대표 모델인 빌라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뉴 빌라레 컬렉션 남성 워치. 컴플리트 캘린더, 세컨드 핸드 기능을 갖추었으며, 6시 방향에는 오묘한 표정의 달님 문양이 자리 잡고 있다. 1천7백만원대. **티파니 CT60 칼린더 워치** 194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선물 받은 티파니 골드 워치에서 영감을 얻어 보다 모던하고 현대적으로 재탄생한 남성 워치. 월, 일, 일을 알려주는 더블 칼럼네이션 7능과 42시간 파워 리저브, 100m 방수 기능, 충격 흡수 시스템을 갖추었다. 2천8백만원대.

**Engagement ring**

(맨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리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양 쪽의 밴드가 가늘어져서 모여지는 티파니 하모니 링 2.51캐럿 기준 가격 미정. 특별한 우아함을 자랑하는 오벌 세이프 다이아몬드 링 1.31캐럿 기준 3천8백만원대 모두 **티파니**. 포인트 다이아몬드와 함께 24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르도 리퍼란트 화이트 골드 솔리테어 링 0.27캐럿 기준 1천만원대 **부세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동백꽃이 피어난 듯 여성스러운 꽃잎 다이얼을 다룬 뉴 카렐라 링 17캐럿 기준 4천2백만원대 **사펠리**. 큰 꽃잎에서 영감을 받은 라벨로 솔리테어 링 17캐럿 기준 3천만원대. 다이아몬드와 플라티넘 밴드로 이루어진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피아페레 솔리테어 링 17캐럿 기준 3천만원대 모두 **타사키**. 플라티넘 밴드의 양쪽 가장자리를 상세한 골드 비즈로 장식한 에스펠 솔리테어 링 0.37캐럿 기준 6백만원대. 동그란 원이 이어지는 비즈 장식 밴드가 특징인 베를리 핑크 골드 솔리테어 링 0.37캐럿 기준 5백만원대 모두 **반올 리프 아메**. 조각미를 보듯 상세하고 여성스럽게 디자인한 밴드 디자인의 클로세 핑크 골드 솔리테어 링 17캐럿 기준 2천만원대 **루시에**. 피아노 건처럼 디자인한 밴드 디자인이 유니크한 피아노 솔리테어 링 0.37캐럿 기준 9백80만원대 **타사키**. 5.02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링, 5.09캐럿의 마카스 컷 다이아몬드 링, 5.05캐럿의 옐로 다이아몬드 링 은 프로미스 컬렉션으로 모두 가격 미정 **그라프**. 3개의 고리가 메인 스톤을 중심으로 산비하게 얹힌 듯한 디자인이 유니크한 트리플 루비 솔리테어 링 1.13캐럿 기준 5천2백만원대. 4개의 돌을 플래트와 와이어 보드로 이루어진 마운트가 메인 다이아몬드의 빛을 극대화하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솔리테어 18K5 패배 링 1.22캐럿 기준 3천7백만원대 모두 **카르띠에**. (맨 아래쪽 왼쪽부터) 티파니 세팅이라는 고유 세팅법을 탄생시킨 티파니 세팅 링. 6개의 프롱이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완전히 들어 올린 디자인이 특징인 링으로 1.10캐럿 기준 2천5백만원대. 산비롭고 아름다운 물방울 모양의 피어 세이프 다이아몬드 링 2.51캐럿 기준 가격 미정. 두 줄의 비즈 세팅 다이아몬드가 중앙의 다이아몬드를 더욱 크게 돋보이게 하는 티파니 솔리스트 링 1.06캐럿 기준 3천만원대 모두 **티파니**. (중앙의 네크리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꽃잎 부분에 마카스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열쇠 도리브를 완성한 빅토리아 키 펜던트 네크리스 1천8백만원대 **체인 벨로** **티파니**. 꽃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활짝 핀 꽃잎을 상모한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마카렛 네크리스 1캐럿 기준 2천3백만원대 **루시에**. 고유 의 네 가지 모티브 밴드를 하나로 합친 코르도 레 다윈트 링을 미니 사이즈의 펜던트로 재해석한 코르도 레 다윈트 화이트 골드 미니 링 펜던트 1천만원대 **부세페**.







*Wedding bands for couples*

(왼쪽 반지 위부터 아래로) **부세온 파셋 컬렉션** 다면체의 면을 뜻하는 이름처럼 여러 개의 면에 적용된 독특한 카팅 기법이 돋보이는 커플 밴드 링.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링 2백만원대, 플라티넘 링 2백만원대, **타마니 T 투 컬렉션**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미니멀 T 모티프가 대용량 이르는 구조적인 디자인의 커플 링, 화이트 골드 링 1천만원대, 로즈 골드 링 4백만원대, **부세온 리트로 블랙 컬렉션**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네 가지 모티프의 화이트와 블랙 골드의 조화로 완성한 커플 에디션, 블랙 다이아몬드 스톤 링 1천만원대, 블랙 스톤 링 5백만원대, **반달리프 아메리 컬렉션** 장인이 직접 만든 원형 비즈 장사과 로고 시그니처를 새긴 커플 링, 핑크 골드 링 3백만원, 화이트 골드 링 3백10만원, (네크리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예로부터 자성과 순수, 부의 상징으로 여겨온 수년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로타스 밴드 2천5백만원대(세팅인 별도) **반달리프 아메리**, 꽃잎 하나하나에 다이아몬드를 피베 세팅하고 에메랄드로 포인트를 준 네크리스 3천2백만원대 **블가리**, 44개의 리운드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컷팅 모티프와 핑크빛 잔주가 조화를 이루는 베를 뮐름 네크리스 0.50카럿 기준 7백만원대 **사펠 화인 주얼리**, (오른쪽 반지 위부터 아래로) **카르띠에 러브 컬렉션** 브랜드를 대표하는 스크루 문양을 새긴 러브 링, 러브 골드 링 2백만원대, 러브 솔라이어 링 4백80만원대, **카르띠에 에트라 티 컬렉션**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등 세 가지 컬러의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워딩 밴드 링, 3색 골드 워딩 밴드 2백만원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3색 골드 링 5백50만원대, **타사키 피아노 컬렉션** 피아노 건반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피아노 커플 밴드 링 각 1백50만원대, **블가리 블가리 블가리 컬렉션** 더블 로고 창시 모티프가 특징인 커플 링, 남성용 밴드 링 2백만원대, 여성용 밴드 링 2백만원대, **루시에 파르미 컬렉션** 일그러진 기법으로 완성한 워딩 밴드, 남성용 밴드 링 1백20만원대, 여성용 밴드 링 1백60만원대, **사펠 화인 주얼리 마르카세 컬렉션** 킬트 모티프를 그래픽적으로 차용한 커플 링 각 1백만원대.



*Woman's elegant watch*

(왼쪽부터 차례대로) **블랑팡 우먼 컬렉션**의 **칼렌더** 하이 컴플리케이션 오트마터 워치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컬렉션의 **칼렌더** 워치, 6시 방향의 문패이즈 기능과 함께 컬렉션의 **칼렌더**를 탑재했다. 2천2백만원대, **위블로 백방 골드 화이트 다이아몬드** 백방 컬렉션에서 선보이는 퀴츠 무브먼트의 여성 워치, 백방 고유의 파워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18K 레드 골드 소재의 백방에 1백26개의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했다. 3천만원대, **사펠 화인 주얼리 J12** 화이트 하이 테크 세라믹에 화이트 자개 다이얼, 4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백방, 양개의 다이아몬드 인덱스로 스타일리시면서도 우아한 여성미를 한껏 담은 여성 워치. 1천5백만원대, **블가리 루체아 컬렉션** 워치 분야에서 영감을 받은 루체아 여성 워치, 빛살을 연상케 하는 다이얼 패턴과 둥근 해일로 모티브의 원형 케이스, 세르베티의 분절 구조를 반영한 브레이슬릿이 이 워치를 더욱 특별하게 한다. 1천1백만원대, **카르띠에 클레 드 카르띠에 워치** 카르띠에의 시그니처로 부성한 **클레(Cle)** 컬렉션 여성 워치, 시간을 맞추기 위해 시각형 크라운을 돌릴 때 마치 열쇠를 돌리는 듯한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1천5백만원대, **반달리프 아메리 워치** 백방 부분에 리운드 다이아몬드를 두 줄로 장식한 주얼리 워치, 알함브라 창시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아름답게 흔들리는 것이 매력이다. 2천5백만원대, **타마니 라펠 워치** 우아한 오벌 세이프 케이스의 여성 워치, 백방에 세팅한 다이아몬드와 로즈가자 인덱스, 블랙 사틴 스트랩의 조화가 화려한 주얼리 워치는 물론 예쁜 워치로도 인기가 높다. 1천8백만원대.





*High-class watches for couples*

(네르리스만 유행부터 아레라) 세의 것들을 추상화한 구조적인 디자인의 오외조 드 파라디 네르리스 가격 미정 **반젤리프 아펠**, 난초의 한 종류인 카틀레아 꽃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벨레 부케 카틀레아 네르리스 7천4백만원대 **타사키**, (워치 왼쪽 유행부터) **오메가 드빌 프레스티지 여성 워치** 직경 27.4mm의 케이스에 글로시한 블루 자개 다이얼을 매치하고, 다이아몬드 인텍스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다. 3백40만원대. **태그호이어 뉴 가우디 레이다 컬렉션** 이주라주 효과를 준 블랙 다이얼에 스틸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스포티한 매력과 세련된 이미지를 부여한다. 3백39만원. **몽블랑 하리 티지 크로노메트리 핀타임** **여성 워치** 직경 40mm의 넉넉한 다이얼에 시킨은 물론, 월과 날짜, 요일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애뉴얼 캘린더 기능을 탑재했다. 12시 방향에 달, 3시 방향에 날짜, 6시 방향에 문페이즈, 그리고 9시 방향에 요일 디스크가 놓여 있다. 1천5백77만원. **브라게 클라식 타임 9068 여성 워치** 여성을 위한 컴플리케이션 워치의 대명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슬림한 이 시계는 시, 분, 초를 보여줄 뿐 아니라 3시 방향에 날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가 위치해 있다. 슬리프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한 셀프윈딩 무브먼트를 적용했으며 38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3천2백만원대. **에르메스 아쇼 36mm 여성 워치** 1978년 앙리 도라카가 디자인한 에르메스의 시그처 컬렉션인 아쇼 라인의 여성용 모델. 밑을 밟을 때 발을 담은 동자에서 영감을 받은 비대칭 디자인의 라그가 특징이다. 1천5백만원대.

*Gorgeous wedding jewelry*

(네르리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총 29.12카트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아이리스 드롭 네르리스, 매듭이 진 듯한 디자인의 롱 네르리스, 상들리에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디자인의 네르리스 모두 가격 미정 **그라프**, (원형 가운데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링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2개의 브리지 중앙에 위치한 메인 다이아몬드를 품은 디자인이 인상적인 인문트로 다모레 솔리테어 링 1캐럿 기준 2천3천9백만원대 **블가리**, 밴드 안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채널 밴드 링 5백만원대, 7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세이드 세팅 밴드 링 7백만원대 모두 **타사키**, 네 줄로 이뤄진 파트로 라인 중 하나인 레디언트 라인으로만 완성한 파트로 레디언트 플라티넘 워딩 밴드 5백만원대, 트윈스트 체인 모양의 세팅 화이트 골드 링 70만원대 모두 **부세몬**, 열레 다이아몬드를 하프 파에 세팅한 브릴란테 골드 링 7백80만원대 **타사키**, 장미꽃을 투각 기법으로 상세하게 표현한 페달 핑크 골드 링 1백50만원대 **루시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뜻하는 벨리시테 링, 화이트 골드 버전 4백90만원, 핑크 골드 링 4백50만원 모두 **반젤리프 아펠**, 파리 방문 관광의 필자형 용도가 매력적인 프라미에르 워딩 밴드 링 4백만원대, 꽃잎 모양을 형상화 한 밴드 디자인이 매력적인 가젤리아 링 3백만원대 모두 **사텔 화인 주얼리**, 에디터 **베미진**, **권유진**, **이지연**

가운데에 1566-7277 **블가리** 02-2056-0171 **타사키** 02-547-9488 **사텔 화인 주얼리** 02-3442-0962 **반젤리프 아펠** 00798-852-16123 **그라프** 02-2256-6810 **부세몬** 070-7500-7282 **루시에** 02-512-6914 **타사키** 02-3461-5558 **몽블랑** 02-2118-6053 **에르메스** 02-542-6622 **오메가** 02-2143-7266 **브라게** 02-3438-6218 **블랑랑** 02-9605-3367 **론진** 02-310-1597 **리도** 02-3213-4168 **티쏘** 02-543-7685 **미도** 02-3149-9599 **해밀턴** 02-3149-9593 **워블로** 02-2118-6208 **태그호이어** 02-776-9018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아델리아 백 1천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임에도 프리미엄 에단 백 중 유일하게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의 새로운 디자인이다. 열 레더라인이 디자인한 토트백.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건축사인 카사 알라타르타의 고풍한 아담스룸에서 영감을 받은 미니멀하면서 모던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럭셔리한 그레이 컬러의 최고급 악가죽을 사용했으며 슬터 스트랩이 포함되어 다양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24x23cm 1천9백만원. 문의 070-7130-9206



토즈 웨이브 백 마구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모던하고 세련된 무드로 재해석해 부드러운 웨이브 형태를 완성한 토트백. 가죽끈으로 끈듯한 느낌을 주는 티탄제이드 워빙 장식으로 유니크한 절연 감성을 기댈었다. 32.5x24cm 2백60만원. 문의 02-3438-6008



델타 브리앙 아스트 웨스트 백 델타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브리앙 백에서 기본으로 더 길어진 디자인으로 보다 모던하고 캐주얼한 멋을 강조했다. 안쪽 하나의 컬러로 보이지만, 세 가지 다른 톤의 컬러를 그레이디이션해 연출해 세련미를 부각했다. 20x16cm 5백만원. 문의 02-3449-5916



팬디 코리아 익스클루시브 레귤러 파카부 백 팬디의 아이콘이자 베스트셀러인 파카부 백의 2016 F/W 코리아 익스클루시브 에디션 백. 한국에서만 한정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다. 만큼 소장 가치가 높은 이 제품은, 같은 오묘하고 고급스러운 다크 그레이를, 안감은 선명한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고, 여기에 파스텔 핑크와 옐로 컬러의 양면 스트랩을 매치해 신드러면서 세련된 느낌을 더했다. 34x21cm 4백46만원. 문의 02-2056-9023

# Luxe & classic

스타일리스트 엄현정  
아이스톤 이백향, 김수민  
플러워 스타일링 유은혜 (yoonhwa)

머느리와 시어머니의 취향을 모두 만족시키는, 품격과 실용성,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까지 모두 겸비한 럭셔리 하우스 8곳에서 제안하는 2016년 에단 백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에르메스 에블린 백 고가 마구용품을 넣는 가방으로 시작해, 현재는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야 할 만큼 에르메스의 시그니처 백이 된 에블린을 보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2016 F/W 뉴 에블린 백. 매끈하고 탄탄한 송아지가죽을 베이스로 중앙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뉴 문장이 새겨져 있다. 28.5x28.5cm 1천만원. 문의 02-544-7722

살비토레 페라기오 소피아 백 살비토레 페라기오의 클래식 7행 라인 중 가장 아이콘적인 제품이자 베스트셀러 라인인 소피아 백의 2016 F/W 신제품. 어느 쪽에나 잘 어울리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컬러와 실용적인 페블 레더, 페라기오의 시그니처인 골드 컬러 간지오 버클이 돋보인다. 39x22cm 2백만원. 문의 02-2140-9664

미리암 에디 베이비 로트 백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글로벌 상류층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프랑스 럭셔리 가방 브랜드 미리암 에디의 아이치니 백. 부드러운 견고함이 느껴지는 오스트리아산 오데사 송아지가죽을 사용해 가볍이 느껴지고, 굳어지기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과 1970년대 로트 메탈의 시계점에서 영감을 받은 펀칭 스트랩 핸들이 특징이다. 33x27cm 7백만원. 문의 02-6905-3318

버버리 미디어 가죽 버클 토트백 버버리 트랜치코트의 헤리티지를 곳곳에서 엿볼 수 있는 토트 겸 숄더백으로, 버버리 체크, 트랜치코트의 상징적인 버클 장식이 눈에 띈다. 스크래치나 오염에 강한 견고한 송아지가죽을 사용하고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춰 실용적인 가방을 찾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37x25cm 2백40만원. 문의 080-700-8800 에디터 권유진





# editor's Pick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울  
신부를 위해 <스타일 조션일보>가 기획한,  
웨딩 디테일을 겨냥한 뷰티 케어 제품.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링클 그랜드오즈 워터부루프 마스크**라 부드럽게 구부러진 마스크라 붓이 드러나듯 칼링 효과를 선사한다. 속눈썹을 한 올 한 올 갈끔하게 빗어 올려 풍성한샤도 잘게 연출해주는 것은 물론, 장미 추출물을 함유해 속눈썹을 부드럽게 가꾸준다. 10g 4만4천원대. 문의 080-001-9500  
*\_by 아사스트트 김수빈*

**글랑 메네오르트 라이트 리프팅 필 파우더** 구슬 따우더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전설적인 메네오르트 필 파우더.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함유해 다도에서 빛을 반사해 피부를 더욱 환하게 밝혀준다. 얼굴의 곡선 부위에 하이라이트를 주고, 광대뼈 중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살려준 다음, 콧날에서 턱을 향해 가볍게 쓸어주면 된다. 25g 8만3천원. 문의 080-343-9505. *\_by 에디터 이지연*

**아틀리에 코오롱 포엘로 피아디 모이스처라이징 보타로션** 보름 갈라에서부터 청량감이 느껴진다. 붉은 로션 타입으로 끈적이지 않고 피부에 촉촉하게 스며든다. 향수가 필요 없을 만큼 상쾌한 자몽 향이 온몸을 휘감으며, 향 지속력도 좋은 편. 265ml 8만4천원. 문의 02-2015-27325. *\_by 에디터 이지연*

**나스 벨벳 아이리너**나 **원보** 초보자도 다루기 쉬운 간편한 펜슬 타입 아이리너로 기존의 펜슬 타입에 비해 삼이 굵어 아이리너를 도약하게 표현해준다. 부드러운 발림성과 자연스러운 스마징 효과로 내추얼한 눈에 표현이 가능하다. 1.1g 3만2천원. 문의 02-6905-3747. *\_by 에디터 이지연*

**돌 포드 뷰티 네뮐리 포르토피노** **아우아** 이 제품의 향을 한피디로 표현하자면 '상쾌하면서 색스한 향이 아닐까. 이뮐리아 포르토피노 리버리타 하얀에서 영감을 받은 기존 네뮐리 포르토피노 향수를 보다 가볍고 프레스하게 재해석한 오 드 투 일렛 향수다. 튀니지산 네뮐리, 이뮐리안 베르가모트, 사살리안 레몬 등의 조화로 첫 향은 특 쓰듯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느껴지고, 이내 따스하고 관능적인 향으로 부드럽게 넘어간다. 50ml 19만원. 문의 02-3479-1436. *\_by 에디터 권유진*

**사슬리 휘드 아이 트윈스**트 도들한 크레올처럼 생긴 이 매혹적인 컬러의 아이 펜슬은 너무 두껍거나 얇지 않은 이상적인 향의 정도 타입으로 아이리너를 도약하게 그릴 수 있으며, 스마징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때도 예쁘게 바를 수 있다. 발림성이 뛰어나고 피부에 자연스럽게 발린다는 크리미한 질감이지만 블래스팅 워터부루프 기능을 더해 번지지 않는다. 문의 080-549-0216. *\_by 에디터 권유진*

**프래쉬 세베리 리바이탈라이징 헤어 케어** 오메가를 함유한 영양 밀집의 오일 베이스 샴푸. 기초 스킨케어 제품에 자주 등장하는 비타민B1과, 사뮌 성분도 들어 있어 촉촉하고 살랑이는 머릿결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여름휴가 이후에 건조해진 머릿결, 잘 영가는 머리카락에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40ml 4만원대. 문의 080-822-9500. *\_by 에디터 베이진*

**다들 5 글로브로 아이 팔레트** 눈매를 그윽하게 표현하는 은은한 핏이 들어간 화이트 터티 섀도우 팔레트. 브라운 등의 컬러로 구성되었다. 물에 살짝 적은 듯한 이리드 스킨 텍스처와 반짝임을 극대화한 글리테리 텍스처 등 다양한 텍스처로 선보여, 그날그날 취향과 스타일에 따라 보다 다채로운 화를 표현할 수 있을 것. 6g 8만5천원.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이지연*

**설화수 연성바디크림** 보다 피부에 깊은 촉촉함과 탄력감을 선사하는 보다 크림. 꿀 성분이 보습 효과를 선사하고, 차마비사 추출물이 탄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한방 유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적스럽다. 200g 8만원대. 문의 080-023-5454. *\_by 에디터 베이진*

**글레드보 보네 루주 리부드 애플라 18오** 허니문에서는 색스하고 유혹적인 레드 컬러가 필수다. 촉촉하지만 지속력이 긴 이 리부드 루주는 너무 두껍지도, 너무 묽지도 않은 식류질이 도는 애플 레드 컬러로, 어떤 피부 톤이나 잘 어울리는 것이 특징. 입술 중앙에 특출 두들기듯 바르거나 라인을 또렷하게 살려 잘게 바르면 대방라면서도 색스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5.5ml 5만3천원대. 문의 02-3438-6032. *\_by 에디터 권유진*

**달팡 르 인스티튜트 페이스 소닉 클렌징 앤 마사징 엑스퍼트** 디테일을 앞둔 예비 신부를 위해 달팡 인스티튜트의 전문적인 테크니를 집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똑똑한 마사지기. 달팡 엑스퍼트라인의 아우진 솜뎀을 그대로 담았다. 인체 공학적으로 고안한 메칸한 스텝 마사징 헤드가 얼굴, 턱의 뒤편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피부 결의 미세 순환을 촉진해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인상이 맑아지고 얼굴선인 한결 부드럽게 정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218원. 문의 02-3440-2706. *\_by 에디터 권유진*

**SK-II R.N.A. 파워 크림** 탄력 크림으로 유명한 제품답게 남다른 쏠림을 자랑한다. 밀도 높은 포플라가 피부를 딱 채워주며 은은한 윤기와 탭 탭한 탄력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 피부가 푸석푸석한 날은 얼굴에 크림을 듬뿍 바르면 솔리팅 백을 한 듯, 즉각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50g 13만원대. 문의 080-023-3333. *\_by 아사스트트 김수빈*

**인성로랑 휘랑 릴리 꾸뛰르** 독보적인 텍스처로 스킨케어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인성로랑의 화이트닝 크림. 미백 기능성을 인성로랑이 추구하고 제형감이 풍부하다. 여러 번 덧발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편인 화이트닝, 보습 효과를 느낄 수 있다. 50ml 15만원. 문의 080-347-0089. *\_by 에디터 베이진*



# smart Lifting

가끔한 텍션과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를 빠르게 되찾는 일, 이제 화장품으로도 가능하다. 가장 아름답게 빛나야 할 중요한 순간을 위해,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눈에 띄게 달라진 피부를 선사할 샤넬의 '르 리프트 V-플래쉬'로 스마트하고 집중적인 뷰티 케어를 시작해볼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스마트 피부 케어, 르 리프트

5년 전에 찍은 사진과 현재를 비교해보니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얼굴형이었다. 두루뭉술해진 턱선과 탄력 없이 축 처진 피부는 얼굴이 커진 것 같더라는 착각까지 들게 하는데, 이런 고민은 30~40대 여성이라면 공감할 부분일 것. 요즘엔 주사 한 방으로 날렵한 턱선과 탄력 있는 피부를 가꿀 수 있는 시대지만, 시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시술 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아플레겐 사나지 효과를 더해줄 스마트한 화장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얻고 싶다면, 리프팅 화장품 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샤넬 코스메틱의 획기적인 시제품을 눈여겨보자. 환경에 따라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연구하는 학문인 '후성 유전학'을 최초로 화장품에 적용한 '르 리프트' 컬렉션으로 리프팅 화장품의 새로운 장을 연 샤넬은 기존 컬렉션의 효과를 높여주면서 보다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탄력 케어를 도입해 '르 리프트 V-플래쉬'를 선보인다. 이는 피부 노화의 원인미 되는 miRNAs를 조절하는 활성 성분인 에틀리스 뿌리에서 추출한 3,5-DA를 함유해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를 위해 필요한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 개개인의 피부 환경에 맞춘 피팅 효과를 발휘해 환경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혁신적인 탄력 케어를 선사한다. 더불어 비타민 B<sub>5</sub>·C·E를 조합해 한 번의 사용으로도 피로의 징후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피로의 징후를 없애는 즉각적인 효과

르 리프트 V-플래쉬의 가장 큰 장점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즉각적인 효과다. 투명한 젤 텍스처로 피부에 촉촉하고 빠르게 스며들면서 산뜻하게 마무리되는데, 이때 피부가 쏠쏠하게 조여지는 듯한 즉각적인 텐싱 효과가 느껴지는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V-플래쉬를 얼굴 전체에 도포하고 르 리프트 마사지 롤로 마사지하면 피팅 효과는 배가된다. 샤넬의 감각적인 파우더 팩트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이 마사지 롤은 탄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고안한 제품. 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턱에서 귀 쪽으로, 턱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는 V-세팅 동작부터 아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마사지는 안타-다크서클 동작, 눈가 주름과 미간을 아이 애플리케이션 끝부분으로 지그재그로 마사지는 안타-링클 동작 등 샤넬 연구소에서 제안하는 여성 가지 마사지법을 참고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세안한 후 첫 단계에 바른 다음, 르 리프트 세럼과 크림 아이, 피부 타입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는 두 가지 텍스처로 선보이는 르 리프트 크림을 사용할 것. 한 달간 꾸준히 사용하면 탄탄한 페이스 라인과 건강한 피부 톤, 주름과 탄력 개선 효과까지 단기간에 얻을 수 있으니 중요한 '날'을 앞두고라면 지금 바로 르 리프트의 스마트한 케어를 경험해보길. 문의 080-332-2700. *\_by 에디터 권유진*





**원석을 위한 최고의 노력**

웨딩 주얼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건 얼마나 가치 있는 주얼리 브랜드의 제품인가 하는 것이다. 여러 개의 동일한 진주가 하나의 라인을 이루는 벨레부케 링으로 유명한 타사키(TASAKI)는 자사 양식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도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고 수준의 감별 능력과 연마 기술을 갖춘 기업만이 얻을 수 있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원석 공급원인 DBGSS에서 직접 원석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홀더 자격을 갖췄다는 것만으로 그 명성을 확인할 수 있다.

**타사키 벨레부케 컬렉션**

이렇듯 질 높은 소재로 선보이는 타사키의 주얼리 디자인은 더욱 유니크하고 특별한데, 그중 웨딩 컬렉션은 더욱 인상적이다. 가장 입도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것은 전 세계 주얼리 디자인의 흐름을 바꾼 타사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타쿤 파니치갈(Thakoon Panichgul)이 디자인한 '벨레 부케(belle bouquet)' 컬렉션. 이 컬렉션은 기존의 리본 로즈, 바운드, 인 블롬, 테이크 플라이트, 리퍼인드 라벨리온 등 유명한 시리즈에 이어 올해 난초 중 하나인 카멜레아 꽃에서 영감을 받은 카틀레아(Cattleya) 시리즈를 출시하게 되었다. 그 어떤 브랜드에서도 구현하기 어려운 고풍적인 아코야 진주와 최상급 다이아몬드의 만남이 드라마틱한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플래티넘에 정교하게 세팅한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을 핑크빛 진주가 품고 있는 네 크리스와 브레이슬릿, 링의 순결한 아름다움, 여성미를 극대화한 디자인은 진주와 다이아몬드에 정통한 타사키만이 선보일 수 있는 컬렉션이다. 타사키의 아름다운 제품을 선택하는 예비 신부에게 타사키는 더욱 멋진 이벤트를 준비했다. 일정 금액 이상 웨딩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특별 제작한 화이트 컬러 2년 웨딩 함을 증정하고, 결혼식 당일 1억원 상당의 진주 장식 웨딩 티아라를 대여해주는 것. 그 누구보다 특별한 결혼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선물이 되어줄 것이다. 문의 02-3461-5558 에디터 배미진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양한 변형에 적용할 수 있는 카틀레아 네크리스, (네크리스 원 안 가장 위부터) 날개를 펼친 듯, 2개로 분리된 카틀레아 링은 한 손가락에 겹쳐서 착용할 수도 있다. 1.5캐럿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벨레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볼륨감을 극대화한 바운드 인게이지먼트 링, 꽃병오리가 피어내는 모습의 인 블롬 링, 깃털 모양의 다테일이 아름다운 테이크 플라이트 카틀 링, 카틀레아 브레이슬릿, 리본 로즈 인게이지먼트 링과 이 어링 모두 타사키.

**Jewel bouquets**

신부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해주는 웨딩 주얼리. 아코야 진주와 최상급 다이아몬드가 만나여리고 순수한 꽃을 피웠다. 최고만을 고집하는 타사키가 완성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위한 벨레부케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6prongs, Tiffany® Setting**

최소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들어 올려 완성한 상징적인 티파니 세팅 링. 1백30년 전부터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웨딩 링으로 반지 중의 반지, 최상의 광채를 자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웨딩 링의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다. 사진 속 제품은 2캐럿 상당의 티파니 세팅 링.

**99.96%**

전 세계 99.96%의 다이아몬드는 티파니 다이아몬드로 선택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티파니 다이아몬드가 언제 어디서나 크기에 상관없이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유다. 가장 클래식한 티파니 세팅 링과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또 다른 버전의 티파니 세팅 링.



*the making* Legend

일생에 걸쳐 1백만 번 바라보게 된다는 웨딩 링. 웨딩 링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티파니 웨딩 컬렉션의 특별한 스토리.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4C+**

티파니는 일반적인 다이아몬드 품질 기준인 4C(컷, 투명도, 색상, 중량)에 더해 '외관(presence)'이라는 다섯 번째 항목을 적용해 다이아몬드의 광채, 섬광, 문광을 보다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이렇듯 까다로운 기준 덕분에 찾아보기 힘든 우수한 광채의 티파니 다이아몬드를 만날 수 있다. 티파니 세팅 링과 Tiffany T Two 링, 밀그레인 밴드 링.

**Over 100**

가장 정확한 비율로 카팅하기에 더욱 우월하고 놀라운 광채로 다시 태어나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이 아름다운 티파니 세팅 링과 피아를 이루는 티파니 웨딩 밴드의 수는 1백 개 이상이다. 티파니 세팅 링과 함께 매치한 다이아몬드 세이드 세팅 밴드 링. 문의 02-547-9488 에디터 배미진





# a masterly Choice

브랜드의 진화를 보는 건 때때로 설렘을 준다. 본연의 가치를 지키되 사회상을 감각적으로 반영하는 세련된 진화라면 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해온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의 변신이 꽤나 흥미롭다. 섬세하게 진화하는 이 품격 있는 브랜드의 5대 마스터 블렌더가 호기롭게 빛낸 야심작 '발렌타인 마스터스(Ballantine's Master's)' 뉴 패키지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흔히 마스터(master)라는 단어는 장인(匠人), 명인(名人), 대가(大家)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일컫는다. 특히 블렌디드 위스키의 대명사 격인 발렌타인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마스터의 존재감이 양상이다. 2백여 년을 이어온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의 브랜드 역사상 단 5명의 마스터 블렌더만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위상의 무게를 쉬이 짐작할 수 있다. 브랜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창의적으로 이어가는 거장(巨匠)의 역할을 의연하게 수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명품을 빛어내는 브랜드라면 그렇듯이, 친밀한 전통의 DNA를 고수 하되 창조적 변화를 꾀하는 중대한 사명을 짊어진다든 얘기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 여름 뉴 패키지를 선보인 발렌타인 마스터스(Ballantine's Master's)는 꽤나 설렘을 안겨주는 결실이다. 오랜 수련을 가진 끝에 마스터 자리엔 오로지 발렌타인의 5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하슬롭(Sandy Hyslop)이 야심 차게 내놓은 첫 번째 작품이어서다.

한국인이 오래도록 사랑해온 발렌타인 고유의 정통성과 현대적 감성을 더해 탄생시킨 발렌타인 마스터스 뉴 패키지는 여러모로 '혁신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다'라는 명언을 떠올리게 한다. 많은 이들이 애정을 쏟아온 정체성의 핵심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일궈낸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선 향과 풍미를 보면, 아메리칸 오크 통에서 숙성시킨 최상의 위스키 원액을 바탕으로 한 발렌타인 특유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맛은 여전하다. 세련미와 부드러움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본연의 맛과 향이

살아 있다. 여기에 신틸하고 진찬한 피니시가 일품이다. 풍미 강한 플로럴 향과 부드러운 오렌지 향이 입안에 감돌고, 기분 좋게 달콤한 바닐라 향이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발렌타인 마스터스의 새 디자인은 우아하고도 시크한 감성을 자아내 눈길을 끈다. 주로 티타늄 실버 컬러를 사용해 현대적인 감각과 마스터스만의 스타일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보틀 디자인의 세련된 단순함은 기존 애호가들 물론 젊은 층에게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발렌타인의 상징인 'B' 로고를 통해 브랜드의 정통성과 새로운 비전을 함께 표현하는 캡슐도 인상적이다. 가장 큰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은 라벨. 경쾌한 느낌의 브이(V)형 수장 무늬와 발렌타인 고유의 문장(crest)이 어우러져 브랜드의 위상을 감각적으로 담아내는 듯하다. 라벨 하단에 위치한 샌디 하슬롭의 서명은 마스터스만의 특별한 가치를 드러낸다. 주요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 접할 수 있는 발렌타인 마스터스 뉴 패키지의 가격은 700ml 6만 원대, 500ml 4만 원대(소비자가 기준). 발렌타인의 창조적 변신을 오롯이 느끼고 싶다면 이 시대 젊은이들을 응원하는 'YOU ARE THE MASTER-내 인의 마스터를 일깨우다' 캠페인을 펼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캠페인 속 마스터는 단지 가정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자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이룬다. 지난 7월 중순부터 개최된, 각 분야 마스터와 함께하는 마스터스 클래스를 출발점으로 삼은 이 캠페인에서는 다채로운 방식으로 소비자와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있다. **에디터 고성연, 권유진**



시계: 카르티에, 향신: 로열방랑

# the true Value

교토의 감성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대표적인 주얼리 그룹이자 주얼리 장인, 아오키 도시카즈(Aoki Toshikazu)가 이끄는 니와카(Niwaka)에서 선보이는, 브랜드의 진정한 가치가 담긴 브라이덜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심플한 디자인과 나뭇결 무늬가 조화를 이루는 니와카 요 모쿠메(Kyo Mokume) 주얼리.

## 장인의 자부심이 탄생시킨 아름다움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결혼 문화도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 다양한 웨딩 트렌드를 탄생시켜왔다. 최근에는 화려함과 격식을 중시하던 기존 형식을 탈피하고 합리적이면서도 특색과 의미가 있는 결혼식을 추구하는 예비부부가 늘어났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예물도 남들이 다 하는 식상한 것이 아닌, 예비 신랑과 신부가 진정으로 원하고 가치가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중 양가 어른들과 친지, 하객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한 후부터 신랑 신부와 매 순간을 함께할 결혼반지야말로 두 사람의 취향과 안목이 집약된 아이템이니만큼 고심해서 골라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여성이 매일 착용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서랍 속에 간직해두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요즘에는 매일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웨딩 밴드를 선호하는 커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니와카의 요 모쿠메(Kyo Mokume) 컬렉션은 화려함을 쫓기보단 유니크하고 실용성을 추구하는 예비부부를 위한 최고의 대안이 될 것이다. 니와카의 요 모쿠메 컬렉션은 화려하진 않지만, 금속 고유의 투박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질감을 최대한 살린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장인의 완벽한 가공 처리로 착용감이 뛰어나기 때문. 니와카는 이미 한국에서도 디자인성과 품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루시에를 운영하는 니와카 그룹의 메인 브랜드다. 1983년 아오키 도시카즈가 교토에서 설립한 니와카는 금속의 질감을 부각한 동양적인 디자인을 주로 선보이며, 창의적인 디자인과 교토의 장인 기술이 결합된 주얼리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무려 1천2백여 년의 역사를 지닌 교토에서 탄생해, 그곳에서 키워온 감성을 니와카만의 세련된 디자인과 최상의 퀄리티로 구현했으며, 주얼리에 기쁨 있는 존재감을 더했다. 니와카의 작품에는 전통적인 문양이나

사계의 아름다운 정경이 담겨 있다. 또 정교하고 치밀한 장인들의 손길을 거쳐야만 완성되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다. 이는 판매 보다 제작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브랜드의 철학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제품의 내부와 피니싱에서 바로 이런 장인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데, 직선으로 처리하는 여타 브랜드의 공장형 시스템에 비해 니와카는 부드럽게 곡선 처리해 뛰어난 품질과 착용감을 자랑한다. 이중 특히 눈에겨겨보아야 할 대표 모델이 요 모쿠메 라인으로, 나무의 단면을 자르면 보이는 나이테에서 이름을 따왔다. 서로 다른 금속을 압축해서 만든 이 컬렉션은 정교한 기술력을 요하는 금속 압축 기술력으로 완성했다. 매트한 표면 피니싱은 반지를 착용하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광채를 내고, 은은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 최상의 퀄리티와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 니와카의 세계

2007년 국내에 론칭한 이후 핑크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링을 레어드하는 스타일링으로 트렌드세터들의 사랑을 받은 루시에. 일본을 대표하는 컨템퍼러리 오프 쿠티어링 주얼리 브랜드 루시에를 운영하는 니와카 그룹은 금속의 질감을 살린 동양적인 디자인의 니와카(Niwaka)와 자매 브랜드인 '뉴욕 니와카(N.Y. Niwaka)'를 설립했다. 루시에, 니와카, 뉴욕 니와카, 이 세 브랜드의 공통점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남다른 유니크함을 갖춘 주얼리 브랜드라는 것이다. 국내에 앞서 소개된 루시에는 플래티넘과 특유의 핑크 골드를 사용한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주로 선보이며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리고 니와카는 주얼리 하나하나를 작품으로 여기며 일본의 전통 문양이나 아름다운 정경과 감성을 담았으며, 디자인과 소재, 마감 처리까지 최상의 퀄리티를 추구한다. 뉴욕 니와카는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두루 갖춘 심플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며 보다 캐주얼하게 착용할 수 있다. 니와카 그룹은 지난해, 이 3개의 브랜드 제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라틀리에 뒤 레브'를 선보인 바 있다. 그 후 1년간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켰으며, 마침내 2016년 루시에 바이 니와카(Lucie by Niwaka)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금 고객들을 찾아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판교점에 자리한 이 프리미엄 부티크에서는 일본의 장인 정신이 깃든 섬세한 작업과 고도의 기술력, 엄격한 공정을 한 번에 살필 수 있어, 생애 가장 소중한 순간을 맞이하는 고객들의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문의 02-512-6914 **에디터 베이민, 이지현**

1 새롭게 단장한 루시에 바이 니와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매장. 2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또 다른 루시에 바이 니와카가 위치한다. 3 진정한 나뭇결 무늬에 차이를 금속을 매치, 상반된 메탈이 매력적인 요 모쿠메 컬렉션 '이치로'. 4 동양적 디자인의 '해바라기' 밴드 링.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압슬뤼 엑스트레 리제네레이션 앤 리뉴잉 엘티피 컨센트레이트 30ml 52만원대, 압슬뤼 엑스트레 아이 컨투어 리뉴얼 15ml 36만원, 압슬뤼 엑스트레 크림 50ml 53만원대 모두 **랑콤**, 문의 080-022-3332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화이트 블랑 인텐시브 화이트닝 세럼 30g 37만원, 화이트 블랑 울트라 라이트닝 마스크 60ml 14만원, 시슬리 에티칼 앙티 아주 크림 50ml 50만원대 모두 **시슬리**, 문의 080-549-0216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킨 케어 리스 아이 리프트 크림 20ml 42만3천원, 스킨 케어 리스 리프트 세럼 50ml 62만원 모두 **리프티비**, 문의 080-511-6626, 골드 오가드 임페리얼 아이 세럼 15ml 31만원대, 골드 오가드 임페리얼 크림 50ml 59만원대 모두 **갈랑**, 문의 080-343-9500

# Prime beauty

항상 고운 모습을 간직하길 바라며 예비 신부와 시어머니가 정성껏 고른 화장품.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기준과 가치, 품격을 담은 '명불허전' 클래식 뷰티 예단 TOP 11.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수퍼 레스투라티브 데이 크림 50ml 16만원, 더블 세럼 30ml 12만원 모두 **클라린스**, 문의 080-542-9052, 페이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160ml 19만원대, 제놀락스 극광 에센스 30ml 17만원, R.N.A 파워 크림 50g 13만원대 모두 **SK-II**, 문의 080-023-3333



(왼쪽부터) 크림드 골드 드 이오 아이 크림 15ml 35만원대, 르 샤텔 40ml 35만8천원, 라 크림드 30ml 68만원대 모두 **골드미노 보메**, 문의 080-564-7700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리프팅 컨투어 세럼 30ml 39만5천원대, 트리트먼트 로션 150ml 18만원, 컨센트레이트 50ml 54만원대, 크림 드 라 메르 30ml 21만원대 모두 **라 메르**, 문의 02-3440-2775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엘라시어 앙사앙 오일 트리트먼트 20ml 21만원대, 크림 앙사앙-인뮤전 페이스 토너 120ml 13만5천원, 크림 앙사앙-크림 30g 21만원대 모두 **프레쉬**, 문의 080-822-9500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수블리마지 리스트레 15ml 63만8천원, 수블리마지 레앙스 30ml 51만원, 수블리마지 라 크림 텍스처 파인 50g 48만원 모두 **샤넬**, 문의 080-332-2700



(왼쪽부터) 퍼펙팅쿠션 인텐스 150gx2(리필 포함) 8만5천원, 지어전 에센스 35ml 15만원대, 윤조 에센스 60ml 9만원대 모두 **설화수**, 문의 080-023-5454 에디터 **권유진, 이지연**



# Pure Fantasy

화이트의 아름다움이 가장 돋보이는 클래식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2016 이탈리아 웨딩드레스 컬렉션. 은은히 드러나는 섬세한 디테일과 여성스러운 장식이 완성하는 한여름 밤의 꿈. *photographed by nicola de rosa*

섬세한 레이스와 새틴 장식이 어우러진 사랑스러운 드레스. 별다른 장식이 없이 소재만으로 더욱이 화려하고 매력적이다. 단순한 실루엣이 소재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Atelier Emé.**





레이스와 새틴을 레이어드한 로맨틱한 소재지만, 대담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강렬한 인상을 준다. 깊이 파인 네크라인과 하이 웨이스트가 포인트. 키 큰 신부에게 잘 어울린다. **Charlie Brear.**



노출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순수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강조한 드레스. 어깨 부분은 시스루로 처리하고 스커트는 우아한 타이트하게 디자인한 것이 특징. 은은하게 파지는 실루엣이 우아하고 품격 있는 인상을 준다. **Le Spose di Gio.**





원 솔더의 유니크한 웨딩드레스.  
소재의 고급스러움과 단순하기  
그저없는 디자인, 안밸런스한  
실루엣이 패셔너블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Max Mara Bridal.**



레이스로 로맨틱하게 장식한 오프  
숄더 드레스. 팔 위쪽을 감싸는  
디자인이라 색상이 보다는  
시원스러운 느낌이 돋보이는  
디자인이다. 스커트는 풍성한  
실루엣으로 애치, 드라마틱한 느낌을  
강조했다. **Matthan Gori.**



신부의 청순함이 돋보이는 레이스 드레스. 노출을 자제한 심플한 슬리브리스 디자인에 층층이 겹친 티어드 트레인을 담아 귀여운 느낌을 기미했다. Enzo Miccio Bridal Collection.



시폰과 레이스 소재의 세시한 드레스. 깊이 파인 불규칙한 네크라인이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강조한다. 타이트한 실루엣과 반짝이는 시폰 장식에 어울려 여배우 같은 매혹적인 웨딩 룩을 연출한다. Alessandra Rinaudo.

헤어 Marco Testa  
메이크업 Erica Vellini  
스타일리스트 Eva Orbetegli





BMW 뉴 7 시리즈와 최동훈 감독, 뜻밖의 조우

# unconventional Combination

B급 감성 무비를 좋아하는 이 남자.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새롭고 역동적인 영화를 만드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는, 이 시대 가장 눈에 띄는 영화감독. 자신의 작품이 빈틈 많은 이상한 영화라고 스스로없이 말하는 최동훈 감독이 요즘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BMW 뉴 7 시리즈와 만났다. 이 만남을 사람 간의 모임을 비유한다면 이런 모습일 거다. 서로 다른 캐릭터의 두 친구, 그들의 열띤 대화. 그 대화에 등장한 공통의 테마는 '혁신과 본질'. 이 둘은 다른 듯 비슷하다. 절묘한 조합이다.

2004년 데뷔작 <범죄의 재구성>부터 <전우치>, <타짜>, <도둑들>, 그리고 최근작 <암살>까지, 불과 10여 년 사이에 만든 다섯 편의 작품 모두 작품성과 흥행성에서 인정받으며 국내 대표 감독의 반열에 오른 최동훈 감독이 BMW 뉴 7 시리즈의 세 번째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BMW에 대한 첫 경험은 10년 전 3 시리즈였다. 그의 아내이자 <암살>을 제작한 케이퍼필름의 인수현 대표가 결혼 전부터 탔던 차로, "그렇게 좋은 차는 처음이었다고 고백할 만큼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다. 그러니 뉴 7 시리즈는 더욱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다."

## 통념을 살짝 비틀다, 의외의 조합이 빛내는 혁신성

"먼저 첫눈에 들어오는 외형부터 고급스러워요. 먼 거리의 전방까지 밝고 선명하게 비추는 레이저 라이트, 더 커진 키드니 그릴로 앞모습부터 압도적인 느낌을 주고, 실내는 마치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연상되더군요. 운전대를 잡으면 반전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핸들링과 승차감이 매끄럽고 부드러워서 놀라고, 땀이 있게 달리다가도 액셀을 깊숙이 밟으면 폭발적 힘을 발휘하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는 뉴 7 시리즈를 타면서 평소엔 정숙하면서 점잖은 모습을 보이다가 필요할 땐 특유의 질주 본능을 발휘하는 야생마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다고 했다. 그리고 6세대에 이르는 BMW

전통의 플래그십 세단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첨단 기술의 향연. 허공에 빙빙 돌리는 손가락 움직임을 감지해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제스처 컨트롤, 키트roller와 음성 인식으로 조작하는 것은 물론 감도가 뛰어난 터치 방식이 가능해진 터치 패널 스크린, 거기에 한층 편리한 주차를 돕는 서라운드 뷰 시스템, 자동차 키에 장착한 LCD 화면으로 차량 정보가 표시되는 BMW 디스플레이 키까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다.

상반되는 요소의 절묘한 조합은 그가 영화에서도 추구하는 부분이다. 일반적 관념을 살짝 비튼, 스토리와 캐릭터의 의외의 조합을 보여주는 게 그의 특이이기도 하다. "그런 게 영화의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타협하지 않는, 제 영화를 완성하는 본질이기도 해요. 이들에게 <암살>은 처음엔 조용하게 흐르는 평범한 역사극인 듯하지만, 극이 진행되면서 서스펜스적 느낌이 들다가 후반부에 이르러 대규모 액션 드라마가 펼쳐지며 주제가 명확히 드러나죠. 매끈하고 아름다운 미장센보다는 거칠고 역동적으로 찍는 걸 더 선호해요." 그런 양면적 매력의 조화가 빛내는 의외성은 곧 혁신과도 맞닿아 있다. 그가 생각하는 혁신이란 삶에도, 영화에도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 "완전히 탈바꿈하는 혁명과는 달라요. 기존의 것보다 발전한, 일반적 예상치를 넘어서는 약간의 변화만으로 새로움을 느낄 수 있죠. 감독 데뷔작을 그 당시 주류가 아니었던 장르물로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기존에 없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 저런데 그 자체가 혁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영화에서 시도한 혁신은 이런 거다. 사기꾼이나 도둑 같은 독특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타짜>에서처럼 과거와 현재를 뒤죽박죽 섞어 복잡



감독의 중심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뻔하지 않은 새로운 재미를 배가했다. 이런 혁신적 디테일의 조화가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에 더 깊숙이 몰입하게 하고, 새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는 첫 영화인 <범죄의 재구성> 개봉 당시, "국내에도 이런 영화가 나왔구나"라는 관객들의 반응이 무엇보다 기뻐했다고 했다.

## 궁극의 조화를 추구하되 본질을 타협하지 않는 리더십

한 편의 영화를 책임지는 수장인 최동훈 감독은 이 시대의 대중문화를 이끌어갈 만한 새로운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두 가지 유형의 리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누가 봐도 잘나고 완벽한 리더. 전 그런 유형은 아니에요. 또 다른 유형의 리더는 조합을 잘 만드는 사람이



1 Progressive 7 세대의 세 번째 리더인 선정된 영화감독 최동훈과 BMW 뉴 7 시리즈. 2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뉴 7 시리즈 승객. 3 뉴 7 시리즈의 디스플레이 키.

라고 생각해요. <삼국지>의 유비 같은 리더죠. 그는 갈싸움을 잘하지도 못하고, 관우나 제갈공명보다 뛰어난 개인적 능력을 갖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비가 훌륭한 리더인 이유는, 충성심과 믿음을 지닌 주변의 인재들한테 아울러 훌륭한 조합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영화는 적게는 1백 명부터 2백 명까지, 취향 뚜렷한 스태프가 모여서 일하다 보니 각자의 만족도와 불만이 다 다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수렴하고 적절히 조율해 훌륭한 조합을 이뤄내는 것, 그런 역할을 잘해내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 극장가를 강타했던 <암살> 이후 휴식기를 갖고 있는 최동훈 감독은 중국 내 영화제에 참석하거나 지난 6월 말에 열린 미장센 단편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 외에, 예전에 좋아했던 책과 영화를 다시 들춰며 곱씹어보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매 영화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선택을 하기 위한 오랜 고민을 시작할 참이다. 불비불명(不飛不鳴)의 시간을 보내며 선택한 애깃거리라는 미숙한 상태에서 더하고 빼기를 거듭하며 흥미로운 각본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주류에 쉽게 편승하지 않는 또 하나의 새로운 영화로 탄생될 것이다. 아마도 '달리는 즐거움'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절묘하게 구현한 모습으로 그를 단번에 매료시킨, BMW 뉴 7 시리즈 같은 빛나는 혁신과 닮은꼴이 아닐까. 글 이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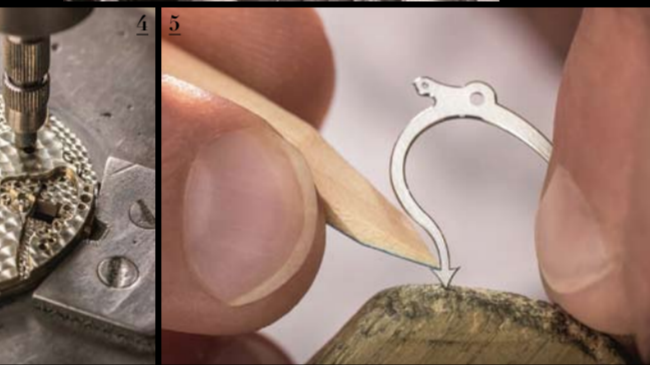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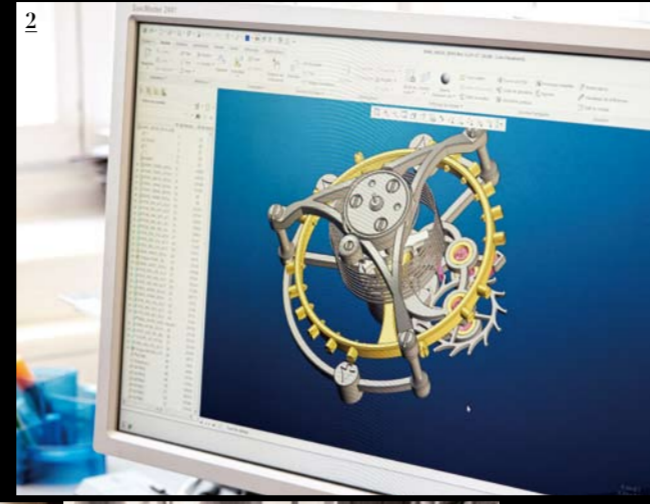


# most innovative World

언제나 새로운 시도와 혁신으로 놀라움과 감동을 주는 브랜드 몽블랑의 특별한 세상, 스위스의 빌르레와 르 로클에 위치한 매뉴팩처에 다녀왔다. 그곳에서 경험한, 몽블랑의 존경할 수밖에 없는 장인 정신과 혁신적인 하이 컴플리케이션 위치의 탄생.

당신이 생각하는 몽블랑의 이미지는? 견고함, 모던함, 고급스러움. 이는 몽블랑과 딱 맞아떨어지는 단어다. 몽블랑의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표현들. 몽블랑은 지난 1백여 년 동안 정교한 장인 정신의 헤리티지를 계승해왔다. 시대를 초월하는 디자인과 스타일, 뛰어난 품질과 장인 정신. 몽블랑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각광 받는 건 최첨단 타임피스다. 첨단 과학과 혁신을 다한 몽블랑의 시계는 1백50년의 역사를 지닌 스위스 위치메이킹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몽블랑의 최고급 위치메이킹은 스위스 최고 수준의 위치메이킹 기술로만 탄생시킬 수 있는 궁극의 타임피스와 혁신적인 칼리버를 제작하는 2개의 유니크한 매뉴팩처가 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매뉴팩처는 서로의 능력을 완벽하게 보완한다. 빌르레 매뉴팩처의 무브먼트 & 이노베이션 액셀러선 센터는 1858년 세운 전설적인 미네르바 매뉴팩처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며,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하이 컴플리케이션에서 고성능 소형 컴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체 무브먼트의 개발과 조립, 시계품 제작에 매진하고 있다. 빌르레에서 이루어진 하이 컴플리케이션 개발의 전문성과 탁월한 기술은 초소형 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데서 그 빛을 발한다. 르 로클 매뉴팩처의 위치 & 퀄리티 엑셀러선 센터에서는 시계 제작 전통과 최신 기술을 접목해 아름다운 디자인에서 새로운 케이스, 다이얼, 핸즈와 주요 부품의 조립에 이르기까지 타임피스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전문 기술을 한곳에 집약시켰다. 몽블랑 위치는 이렇게 수 세기에 걸친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다. 궁극의 정밀함과 완벽함을 갖춘 마스터피스를 만들기 위해 빌르레와 르 로클 매뉴팩처의 장인들은 각 제품에 그들의 영혼과 자부심을 담고, 파인 위치메이킹을 향한 열정을 미래의 몽블랑 위치 오너와 공유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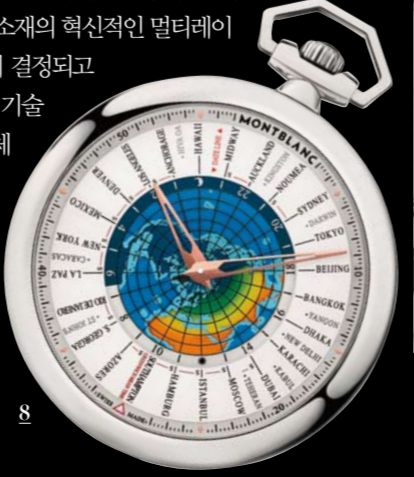
**몽블랑 빌르레 매뉴팩처: 무브먼트 & 이노베이션 액셀러선 센터 VILLERRE MANUFACTURE**  
빌르레 매뉴팩처의 역사는 찰스-이반 로버트(Charles-Yvan Robert)가 생티미에(Saint-Imier) 계곡에 미네르바 매뉴팩처를 설립한 18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네르바는 정밀한 시간 측정에 필요한 크로노메트리 기능에서 스위스 최고의 공방 중 하나로 추앙받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미네르바의 많은 업적 중에는, 1920년대 처음으로 발명한 손



목시계용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와 1936년에 개발한, 1/100초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식 스톱워치가 있다. 또 1950년대에 들어서 파인 위치메이킹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주는 전설적인 미네르바 피타고라스(Minerva Pythagore)를 탄생시켰다. 빌르레 매뉴팩처 한편에는 아직도 20세기 초에 만든 여러 종류의 에나멜 다이얼이 보관되어 있다. 이와 함께 당시 미네르바 매뉴팩처에서 생산한 여러 종류의 무브먼트에 대한 기록이 빼곡하게 적힌 낡은 장부도 여전히 소중한 간직해고 있다.

### 완벽한 무브먼트 개발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몽블랑 빌르레 매뉴팩처에서는 몽블랑 위치메이커의 탁월한 역량과 엔지니어의 뛰어난 기술을 접목해 고성능 소형 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그 예가 바로 몽블랑 빌르레 메타모포시스와 니콜라스 뤼섹 라이징 어워의 멀티레이어 다이얼 제작을 가능케 한 역량과 기술, 헤리티지 스피릿 오르비스 테라룸(Heritage Spirit Orbis Terrarum) 모델에서 북반구와 그 아래의 레이-앤드-나잇 디스크를 보여주는 사파이어 크리스털 소재의 혁신적인 멀티레이어 다이얼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작 계획이 결정되고 위치메이커가 첫 시제품을 만들기 전에 무브먼트 담당자들이 기술적 측면과 디테일한 기능을 마무리 짓는다. 몽블랑의 모든 자체 제작 컴플리케이션은 크기에 관계없이 몽블랑 엔지니어가 정교하게 제작하며, 고성능 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매뉴팩처에 있는 두 곳의 공방에서 제작한다. 한 곳에서는 일반 컬렉션 제품용 무브먼트의 제작에 치중하고, 다른 아틀리에에서는 오래 장인 정신을 계승해 파인 위치메이킹의 노하우와



전통의 재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니콜라스 뤼섹, 엑스 투르비옹, LL100 칼리버에서 MB29, 20 칼리버(헤리티지 스피릿 오르비스 테라룸), MB29, 19 칼리버(헤리티지 크로노메트리 듀얼 타임)의 컴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자체 제작한 무브먼트와 컴플리케이션은 모두 빌르레 아틀리에의 몽블랑 위치메이커들이 조립해 완성한다. 속도, 잔폭, 파워 리저브 등 몽블랑의 모든 품질 테스트를 마친 후 르 로클에서 마지막으로 인케이싱한다. 궁극의 정밀함과 최고의 성능을 위해 모든 부품은 각 생산 단계를 거친 후 수작업으로 관리된다. 각 부품 제작에는 최대 10차례의 공정이 필요한데, 몽블랑 메타모포시스에 사용된 MB M67, 40 칼리버 등의 무브먼트는 7백46개의 부품으로 이뤄지며 4천여 차례의 개별 관리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한편 위치메이커는 무브먼트 각 부품의 외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모서리를 깎아내고, 플레이트에 제네바 스트라이프(Côtes de Genève) 장식을 하며, 휠은 고풍택 처리를 하는 등 수작업으로 장식한다. 몽블랑 투르비옹 실린드릭 지오스피어 바스코 다 가마에 장착한 구 형태의 투르비옹 브리지의 경우, 수작업으로 최종 마감하는 데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이 컴플리케이션 헤어스프링을 자체 제작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와 위치메이커들은 투르비옹 바이-실린드릭나 투르비옹 실린드릭 지오스피어 바스코 다 가마와 같은 혁신적인 컴플리케이션에 탑재된 원통형 헤어스프링을 완벽하게 자체 개발하고 수공 제작했다. 빌르레의 공방에서 제작한 각 타임피스는 한 명의 장인이 조립하고 케이스 작업을 하는데, 이 모든 작업은 수 개월에 걸쳐 손으로 이루어진다. 일단 무브먼트를 조립해 모든 기능을 조정하고, 다시 칼리버를 해체한 후 최종 테커레이션해 다시 무브먼트를 조립하면, 비로소 시계는 완성되어 매뉴팩처를 떠날 준비를 마친다.

### 몽블랑 르 로클 매뉴팩처: 위치 & 퀄리티 엑셀러선 센터 LE LOCLE MANUFACTURE

몽블랑 르 로클 매뉴팩처는 몽블랑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설립된 헤인 1906년에 세운 아르누보풍 빌라에 자리 잡았다. 클래식한 분위기와 모던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디자인, 엔지니어링, 최종 어셈블리와 품질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담당하는 몽블랑 르 로클 매뉴팩처 위치 & 퀄리티 엑셀러선 센터의 위상은 언제나 독보적이다. 생산 과정 초기부터 르 로클의 몽블랑 매뉴팩처 위치메이커들은 타임피스의 모든 부문에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작 방법, 전문성과 정확하고 신중함을 기하는 디테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생산한 제품은 몽블랑이 요하는 최고 수준의 퀄리티를 만족시킨다. 몽블랑 매뉴팩처의 품질팀은



1 빌르레 매뉴팩처의 한편에는 아직도 20세기 초에 만든 여러 종류의 에나멜 다이얼과 무브먼트에 대해 기록한 낡은 장부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2 구체적인 제작이 결정되고 위치메이커가 시제품을 만들기 전에 무브먼트 담당자가 기술적 측면과 디테일한 기능을 마무리 짓는다. 3 1858년 생티미에 계곡에 설립된 미네르바 매뉴팩처, 4, 5 빌르레의 공방에서 제작하는 각 타임피스는 한 명의 장인이 조립하고 케이스 작업을 하는데, 이 모든 작업은 수 개월에 걸쳐 손으로 이루어진다. 6 투르비옹 실린드릭 지오스피어 바스코 다 가마(Tourbillon Cylindrique Geospheres Vasco da Gama)는 빌르레의 마스터 위치메이커들이 최상의 성능과 궁극의 아름다움을 담은 파인 위치메이킹의 자랑을 낚은 혁신적 타임피스다. 7, 8 몽블랑 빌르레 매뉴팩처에서는 고성능 소형 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브랜드의 역량과 기술이 집약된 모델인 몽블랑 빌르레 메타모포시스(사진 7)와 헤리티지 스피릿 오르비스 테라룸(사진 8). 9 몽블랑 르 로클 매뉴팩처에서의 작업은 내부적으로 완성된 디자인 공방에서 시작된다. 모든 작업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깨끗한 환경에서 섬세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10, 11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모든 몽블랑 타임피스는 르 로클에서 마지막 인케이싱까지 마친 다음 각종 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수작업으로 마무리한다. 11, 12 몽블랑 시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몽블랑 랩 테스트 500은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다. 특수한 실험실에서 실제 시계를 착용했을 때의 환경을 최대한 재현하는 것.

몽블랑 시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 몽블랑의 모든 타임피스가 최고의 품질로 매뉴팩처를 떠나도록 한다.

### 몽블랑의 열정, 최상의 타임피스 메이커가 되다

몽블랑 르 로클 매뉴팩처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내부적으로 완성된 디자인 공방에서 시작된다. 디자이너들은 스케치를 바탕으로 시계의 전체적인 모양과 디자인의 윤곽을 잡아내고(2D 작업), 이를 통해 컴퓨터에서 정밀한 디자인을 그려낸다. 그리고 몽블랑 엔지니어는 3D 프rinting 기술을 통해 디자이너가 그린 케이스, 다이얼, 핸즈와 스트랩을 연구하고 일체적으로 만들어낸다(3D 작업), 시계의 구조와 미학을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시제품을 제작하며, 외부 파트와 무브먼트의 캘리터 테스트를 거쳐 승인을 받는다. 낙하 실험, UV 저항 측정, 헤드의 충격 흡수, 스트랩 내구성, 방수 체크, 자성 테스트 등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다. 빌르레의 공방에서 제작한,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모든 몽블랑 타임피스는 르 로클에서 무브먼트에 섬세하게 다이얼을 올리고(다이얼과 무브먼트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두고 섬세하게 조립하는 것이 관건), 핸즈를 조립하고, 마지막 인케이싱까지 마친 후, 방수 테스트를 한 다음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수작업으로 마무리한다. 몽블랑 제품 어셈블리의 모든 과정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은 다양한 시계 포지션에 따른 상태 체크로, 제품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다시 전 단계로 돌려보내 완벽하게 확인한다. 르 로클 매뉴팩처를 떠나기 전 몽블랑 시계는 마지막으로 자체적인 종합 테스트를 거친다. 5백 시간, 즉 약 3주에 걸쳐 시계는 다양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비로소 출시된다. 몽블랑 랩 테스트 500은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다. 타임피스는 특수한 실험실에서 정밀하게 검사하고, 실제 시계를 착용했을 때의 환경을 최대한 가깝게 재현한다. 테스트는 몇 단계로 이루어지며 단계마다 업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퀄리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몽블랑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기구들이 각 테스트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파인 위치메이킹 분야에서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테스트 방법과 몽블랑 랩 테스트 500은 매우 특별한 검사다. 이렇듯 수많은 공정과 거의 3주에 걸친 일련의 테스트를 통해 몽블랑의 시계는 최상의 퀄리티를 갖추고 고객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은 역시 제품의 퀄리티가 기본이 되어야 형성된다. 여기에 1백50년이 넘는 전통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세심한 공정, 몽블랑이 과거와 현재의 만족감을 물론, 미래 역시 더욱 기대되는 브랜드라는 것을 확실하게 된 이유다.





# SHOWROOM



FASHION

**아이그너**  
에르메스  
미우미우  
콜롬비아 벨라 스파가

**펜디 <펜디 로마> 출간** 펜디는 90년간 이어온 전통과 업적을 담은 서적 <FENDI ROMA>를 출간한다. 창립 90주년을 맞아 특별하게 선보이는 <FENDI ROMA>는 펜디에 지속적인 영감을 선사한 도시 로마와 관련한 자료를 비롯해 사진, 역사, 그리고 정체성을 보여주는 브랜드의 아이키트가 담겨 있다. 9월부터 전 세계 펜디 매장과 주요 서점에서 판매한다. 문의 02-2056-9022

**에르메스 오뜨 비주테리 컬렉션** 에르메스는 '시간을 테마로 전개한 새로운 오뜨 비주테리 컬렉션' 컨티넨탈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네 번째로 소개하는 새로운 오뜨 비주테리 컬렉션인 컨티넨탈 컬렉션은 에르메스의 주얼리 디렉터 피에르 아르디가 디자인한 것으로, 뛰어난 세공 기술과 에르메스 특유의 정제된 우아함을 느낄 수 있다. 진주를 더한 옹골에 에 루이에게, 해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아틀라스 스텔라스트, 그리고 47

지 원적으로 섬세하게 채운 푸 뒤 씨델 등 3가지 오뜨 비주테리 세트로 구성된다. 문의 02-544-7722

**아이그너 가라다** 아이그너는 유려한 곡선 디자인이 돋보이는 여성용 워치 시리즈 컬렉션을 선보인다. 최고 품질을 상징하는 A 문양 베젤과 부드러운 곡선 라인으로 완성한 케이스가 여성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선사한다. 로즈 골드와 살바 케이스로 선보이며, 브라운, 핑크, 블랙 등 다양한 컬러의 스트랩으로 출시한다. 시계 전문 편집숍 갤러리아클락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284-1300

**콜롬비아 벨라 스파가 리츠 파리 부티크 오픈** 콜롬비아 벨라 스파가는 파리 럭셔리 중심가인 방돔 광장에 위치한 리츠 파리에 새로운 부티크를 오픈했다. 프랑스에 처음으로 문을 연 공식 부티크로, 밝은 오크와 베이지 컬러의 대리석으로 완성된 인테리어가 우아하면서도 럭셔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하우스의 장인 정신으로 까다롭게 제작한 콜롬비아 벨라 스파가의 다양한 아이템으로 가득 차 있으며, 2016 F/W 컬렉션의 신상품도 진열해 더욱 특별하다. 문의 070-7130-9200

**미우미우 창담 부티크 오픈** 미우미우는 레드투웨어 컬렉션, 신발, 가방, 그리고 패션 액세서리를 선보일 미우미우 창담 부티크를 오픈했다. 명품 소품의 매카인 창담동에 자리한 이 매장은 화려한 메달 커튼으로 꾸민 파사드와 스카이 블루 컬러 다마스콥 패브릭으로 이루어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가방, 신발, 액세서리를 진열한 1층과 레드투웨어의 상으로 가득 채운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02-541-7443

**프리다 리팜프 로욜모** 프리다는 커를 향수로 활용하기 좋은 새로운 향수 듀오 '리팜프', '로욜모'를 출시한다. 사피아노 가죽, 밀라노 로고, 세련미가 느껴지는 반원형 보틀 등 프리다를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를 기미한 것이 특징이다. 달콤한 플루메리아, 비닐라와 스파이시한 일랑일랑이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는 여성용 향수 리팜프는 여성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아이리스, 앰버, 네롤리, 파출리의 조화가 시원하게 파지는 로욜모는 관능적인 남성미를 연출해준다. 문의 02-3443-1805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인텐시브 리카버리 앰플** 에스티 로더는 강력한 피부 개선 효과를 발휘하는 신제품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인텐시브 리카버리 앰플'을 출시한다. 불규칙한 생활과 유해 환경으로 지치고 가칠어진 피부에 힘을 부여하는 집중 케어 앰플로, 리카버리 농축액이 피부 본연의 개선 능력을 강화해 밤사이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꿔준다. 하나의 앰플에 1회 사용량을 담아 더욱 깔끔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3440-2772

**사텔 2016 가을 메이크업 컬렉션** 사텔은 시그니처 컬러인 레드를 새롭게 해석한 '2016 가을 메이크업 컬렉션'을 선보인다. 가브리엘 사텔이 사랑하는 컬러이자 사텔의 아이코닉한 컬러인 레드를 활용한 이번 가을 메이크업 컬렉션은 레드를 활용하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메이크업 아이템으로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 클래식한 레드 립스틱은 물론 아이섀도, 블러셔, 네일 등 레드를 더욱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코스메틱으로 구성된다. 문의 080-332-2700



프리다  
클라린스  
에스티 로더  
다음

**다음 드림스킨 퍼펙트 스킨 쿠션** 다음은 자연스러운 윤광과 화한 피부 톤을 연출해줄 쿠션 파운데이션 '드림스킨 퍼펙트 스킨 쿠션'을 선보인다. 다음이 최초로 출시한 쿠션 제품으로, 피부 컬러 모방 성분을 담아 본연의 피부와 가장 유사한 색을 표현해준다. 울긋불긋한 붉은 기를 깔끔하게 잡아주며, 피트 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준다. 문의 080-342-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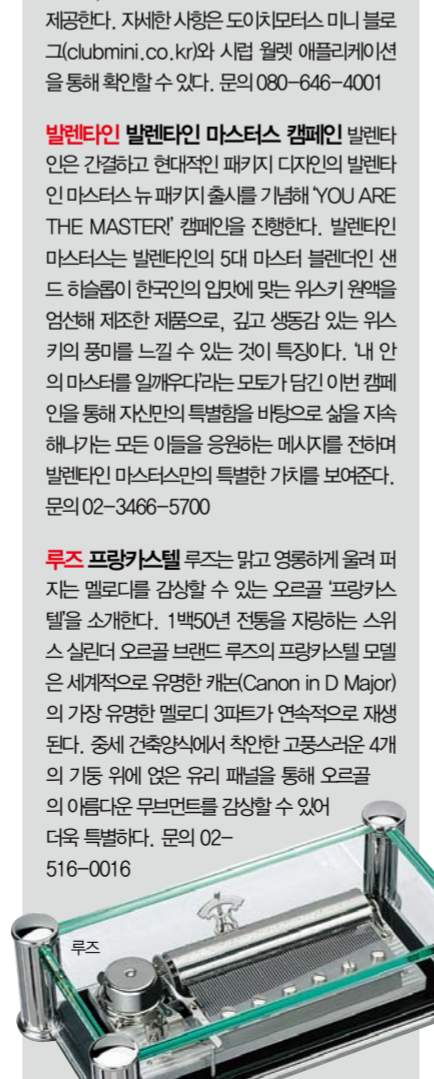


루즈

**도이치모터스 SK플래닛 시럽과 미니 브랜드 엠버싱 서비스 제공** 도이치모터스는 SK플래닛 시럽(Syrup)과 함께 미니(MINI) 브랜드 엠버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럽 월렛 애플리케이션으로 설치 가능한 미니 엠버싱을 통해 디자인, 옵션 등 미니 모델에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미니 자이나 체렌 프로그램을 실시 기간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매월 미니 공식 프로모션 정보, 뉴스레터 등 소비자 유용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했으며,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이치모터스 미니 블로그(clubmini.co.kr)와 시럽 월렛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80-646-4001

**발렌타인 발렌타인 마스터스 캠페인** 발렌타인은 간결하고 현대적인 패키지 디자인의 발렌타인 마스터스 뉴 패키지 출시를 기념해 'YOU ARE THE MASTER!' 캠페인을 진행한다. 발렌타인 마스터스는 발렌타인의 5대 마스터 블렌더인 샌드 하슬러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위스키 원액을 엄선해 제조한 제품으로, 깊고 생동감 있는 위스키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 안의 마스터를 일깨워달라는 모토가 담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신만의 특별함을 바탕으로 삶을 지속해나가는 모든 이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발렌타인 마스터스만의 특별한 가치를 보여준다. 문의 02-3466-5700

**루즈 프랑카스텔** 루즈는 맑고 영롱하게 울러 퍼지는 멜로디를 감상할 수 있는 오르골 '프랑카스텔'을 소개한다. 1백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스위스 살린더 오르골 브랜드 루즈의 프랑카스텔 모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논(Canon in D Major)의 가장 유명한 멜로디 3파트가 연속적으로 재생된다. 중세 건축양식에서 착안한 고풍스러운 4개의 기둥 위에 얹은 유리 패셀을 통해 오르골의 아름다운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문의 02-516-0016



도이치모터스  
발렌타인  
루즈

LIFESTYLE

## JEWEL

**까르띠에 아틀레트 드 까르띠에** 까르띠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피인 스톤 주얼리 '아틀레트 드 까르띠에' 이어링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한다. 아틀레트의 상징인 원형 펜던트가 우아한 드롭형 이어링으로, 움직임에 따라 경쾌하게 흔들리는 것이 특징. 보호를 뜻하는 화이트 자개, 평온을 의미하는 라피스 라줄리, 그리고 용기라는 뜻을 지닌 옉스 등 총 3가지 버전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66-7277

**반클리프 아펠 에메랄드 엠 마제스테** 반클리프 아펠은 에메랄드 원석을 향한 브랜드의 찬사와 열정을 담은 하이 주얼리 컬렉션 '에메랄드 엠 마제스테'를 새롭게 선보인다. 보석 감정 전문가가 엄선한 1천5백 캐럿 이상의 진귀한 에메랄드를 다양한 커팅 기법을 통해 재탄생시킨 것으로, 반클리프 아펠만의 범접할 수 없는 하이 주얼리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클로디네크리스, 풍성한 꽃 대발을 연상시키는 부케 데메도르 클립, 눈부신 광채를 발하는 캐노피 링 등 다채로운 주얼리 피스로 구성된다. 문의 00798-852-16123

**리도 하이퍼크롬 울트라 라이트 호츨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리도는 '트루 오픈 허트'로 레드닷 디자인상을 수상한 데 이어, 브랜드의 타임피스 '리도 하이퍼크롬 울트라 라이트'가 호츨의 굿디자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리도 하이퍼크롬 울트라 라이트는 인덱스가 없는 다이얼과 짙은 회색에서 심플한 화이트까지의 모 델로, 칠삭실리콘 세라믹,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그리고 강화 티타늄으로 이루어진 소재가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2164-5195

**타사키 웨딩 프로모션** 타사키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를 위한 특별한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일정 금액 이상 웨딩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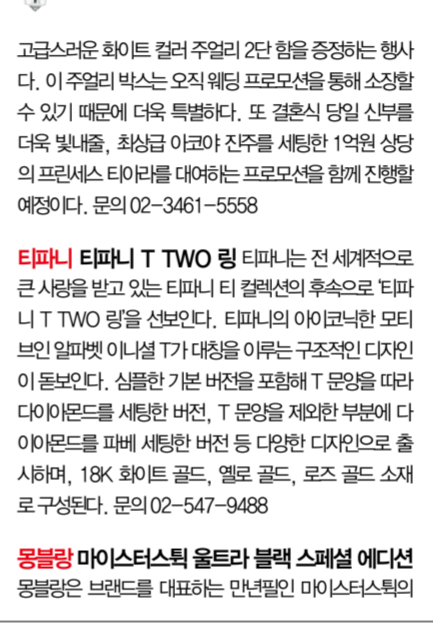


반클리프 아펠  
까르띠에  
타사키  
타사키  
타사키

고급스러운 화이트 컬러 주얼리 2단함을 증정하는 행사다. 이 주얼리 박스는 오직 웨딩 프로모션을 통해 소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다. 또 결혼식 당일 신부를 더욱 빛내줄, 최상급 이코닉 진주를 세팅한 1억원 상당의 프린세스 티아라를 대여하는 프로모션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3461-5558

**타파니 타파니 T TWO 링** 타파니는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타파니 티 컬렉션의 후속으로 타파니 T TWO 링을 선보인다. 타파니의 아이코닉한 모티프인 알파벳 A-Shape T가 대칭을 이루는 구조적인 디자인이 돋보인다. 심플한 기본 버전을 포함해 T 문양을 따라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T 문양을 제외한 부분에 다이아몬드를 패배 세팅한 버전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하며, 18K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로즈 골드 소재로 구성된다. 문의 02-547-9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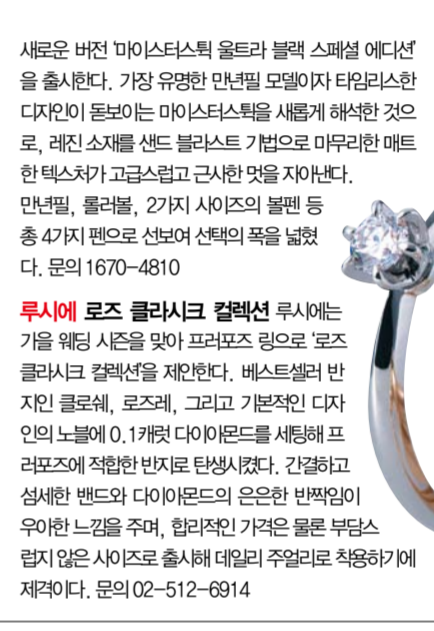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울트라 블랙 스페셜 에디션** 몽블랑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만년필인 마이스터스틱의



타파니  
몽블랑  
루시에

새로운 버전 '마이스터스틱 울트라 블랙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한다. 가장 유명한 만년필 모델이자 타임리스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마이스터스틱을 새롭게 해석한 것으로, 레진 소재를 샌드 블라스트 기법으로 마무리한 매트한 텍스처가 고급스러운 근사한 멋을 자아낸다. 만년필, 롤러볼, 27cm 사이즈의 볼펜 등 총 47종 팬오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1670-4810

**루시에 로즈 클래식 컬렉션** 루시에는 가을 웨딩 시즌을 맞아 프라프즈 링으로 '로즈 클래식' 컬렉션을 제안한다. 베스트셀러 반지인 클로세, 로즈레, 그즈레, 그리고 기본적인 디자인의 노블레 0, 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프라프즈에 적합한 반지로 탄생시켰다. 간결하고 섬세한 패턴의 다이아몬드의 은은한 반짝임이 우아한 느낌을 주며,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로 출시해 데일리 주얼리로 착용하기에 제격이다. 문의 02-512-6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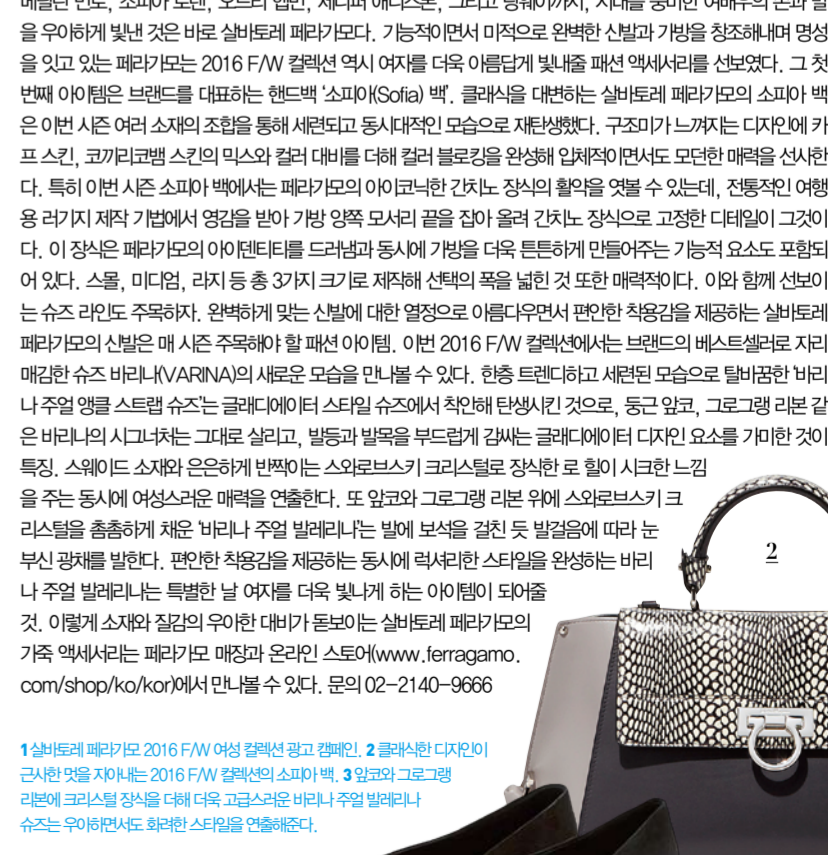
타사키  
타사키  
타사키

## NEO ELEGANCE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스타디얼러 자리를 지켜온 소피아 백과 바리나 슈즈가 소재의 우아한 대비로 새롭게 태어났다. 2016 F/W 컬렉션을 통해 선보인 소피아 백과 바리나 슈즈의 색다른 변주를 만나보자.

매달린 연로, 소피아 로렌, 오드리 햅번, 제니퍼 애니스톤, 그리고 탕웨이까지, 시대를 풍미한 여우의 손과 발을 우아하게 빛낸 것은 바로 살바토레 페라가모다. 기능적이면서 미적으로 완벽한 신발과 가방을 창조해내며 명성을 얻고 있는 페라가모는 2016 F/W 컬렉션을 역시 여자를 더욱 아름답게 빛내줄 패션 액세서리를 선보였다. 그것 번째 아이템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핸드백 '소피아(Sofia)' 백. 클래식을 대변하는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소피아 백은 이번 시즌 여러 소재의 조합을 통해 세련되고 동시대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구조적이 느껴지는 디자인에 카프 스킨, 코끼리코르크 스킨의 믹스인 컬러 대비를 더해 컬러 블로킹을 완성해 입체적이면서도 모던한 매력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시즌 소피아 백에서는 페라가모의 아이코닉한 간츠노 장식을 활약을 엿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여행용 라지 지퍼 가방에서 영감을 받아 가방 양쪽 모서리 끝을 잡아 올려 간츠노 장식으로 고정된 디테일이 그것이다. 이 장식은 페라가모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며 동시에 가방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스몰, 미디엄, 라지 등 총 3가지 크기로 제작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것 또한 매력적이다. 이와 함께 선보이는 슈즈 라인도 주목하자. 완벽하게 맞는 신발에 대한 열정으로 이름다우면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신발은 매 시즌 주목해야 할 패션 아이템. 이번 2016 F/W 컬렉션에서는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자리 매김한 슈즈 바리나(VARINA)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한층 트렌디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탈바꿈한 바리나 주얼 앵클 스트랩 슈즈는 글래디에이터 스타일 슈즈에서 착안해 탄생시킨 것으로, 둥근 앞코, 그로그링 리본 같은 바리나 스타일은 그대로 살리고, 발등과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글래디에이터 디자인 요소를 기미한 것이 특징. 스웨이드 소재와 은은하게 반짝이는 스와르브스키 크리스탈로 장식한 로 힐이 트러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여성스러운 매력을 연출한다. 또 앞코와 그로그링 리본 위에 스와르브스키 크리스탈을 촘촘하게 채운 바리나 주얼 발레리니는 발에 보석을 걸친 듯 발걸음에 따라 눈부신 광채를 발한다.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럭셔리한 스타일을 완성하는 바리나 주얼 발레리니는 특별한 날 여자를 더욱 빛나게 하는 아이템이 되어줄 것. 이렇게 소재와 질감의 우아한 대비가 돋보이는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가죽 액세서리는 페라가모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www.ferragamo.com/shop/ko/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140-9666

1 살바토레 페라가모 2016 F/W 여성 컬렉션 광고 촬영, 2 루시에 디자인이 근사한 멋을 자아내는 2016 F/W 컬렉션의 소피아 백, 3 앞코와 그로그링 리본이 크리스탈 장식을 더해 더욱 고급스러운 바리나 주얼 발레리니 슈즈는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스타일을 연출해준다.



1  
2  
3